

세상을 지키는  
따뜻한 사람들

# 교정

／  
선심

선량하게 베푸는  
후한 마음  
／

審 살펴갈 내일!  
:살필 심

心 희망찬 마음=  
:마음 심

深 뜻깊은 오늘+  
:깊을 심

2019  
11

Vol. 522





# 2019.11



'선심'은 선량하게 베푸는 후한 마음입니다. 불교에서는 선심에 대해 부끄러움과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계산 없이 상대를 대한다면 언젠가는 베푼 만큼 돌아오지 않을까요? 이번 호 월간 <교정>에서 선심의 의미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좌측 QR코드를 인식하면 월간 <교정> 참여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월간 <교정> 참여 코너의 신청, 낱말퀴즈 정답 응모, 독자 사연 & 독자 의견 송부 등이 가능합니다.



교정 2019년 11월호 (통권 522호) 63권 11호  
[www.corrections.go.kr](http://www.corrections.go.kr)

발행인 최강주 법무부 교정본부장  
인쇄 서울남부교도소  
기획디자인 반디컴 02)2272-1190

월간 교정은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무단전제나 복제를 금합니다.  
수록된 내용은 법무부 교정본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페이스북 주소  
[www.facebook.com/majcor](https://www.facebook.com/majcor)



카카오톡 아이디  
majcor

페이스북과 카카오톡에서 '법무부 교정본부'를 검색하시면 친구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희망찬 마음 =

# Contents

04

마음을 열다

06

테마를 넘다

선행의 바탕은 사람의 향기와 품격이다

08

사람을 읽다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이경림 대표

12

역사를 품다

화해와 포용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다

넬슨 만델라

14

추억을 담다

독자에게 들어 보는 '선심'





# 深

뜻깊은 오늘 +

16

교정은 행복을 신고

민원인과 민원실 직원들이 함께 누린 행복 현장  
(수원구치소 민원실)

20

영화 같은 하루

점토의 변신은 무죄! 화려한 도자기가 되는 마법  
(공주교도소 교위 이수인 가족)

24

일상 상담소

허무하게 흘러보낸 휴일, 더 잘 쉬기 위해 필요한 것

26

마음 나침반

다른 사람에게 충분히 베풀고 있나요?

28

시간을 달리는 교정

의료 처우, 눈부시게 발전하다

30

여행 따라 잉글리쉬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향구도시, 밴쿠버  
+ 관광과 관련한 영어 표현

34

신조어백과

얼죽아 & 엄근진

36

글로벌 핫클릭

필리핀, 교도소 내 마약·흥기 숨긴  
가건물 발견되어 철거 외



# 審

살펴갈 내일 !

38

여민 교정

제5회 부산구치소 어린이 유도 대회

42

HEADLINE

제74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46

교정 희망의 백일장 I

“요즘 직장에서는 이런 것도 해 줘”

48

교정 희망의 백일장 II

부모님, 이제야 안아 드리는 저를  
부디 용서해 주세요

50

교정을 말하다

가석방제도의 운영 현황과 발전 방향(上)

56

NEWS

본부 소식 & 일선기관 소식

63

모범공무원 소개

64

국민이 전하다

청주여자교도소 교도관 체험수기

65

날말퀴즈

66

독자의 소리



“내가 남에게 베푸는 공은 마음에 새겨 두지  
말아야 하고, 내가 남에게 저지른 잘못은  
마음에 새겨 두어야 한다. 남이 나에게  
베푸는 은혜는 잊어선 안 되고, 남이 나에게  
끼친 원망은 잊어버려야 한다.”

- 『채근담』 중 -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한다”거나 “주는 만큼 받는다”라는 말이 오갑니다. 일방적으로 받기만 해서는 관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배려를 받고 위안을 얻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동일합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남에게 주었던 것보다 받았던 것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쩌면 주변 사람들은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각오로 나에게 먼저 다가와 준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았듯이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한 선량한 마음을 베풀어야 합니다.

나의 행동과 말이 남에게 진심으로 느껴진다면 ‘주는 행복’을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베풀고, 은혜를 입으면 잊지 않고 되돌려 주어야 서로 주고받는 따뜻한 관계가 이어집니다. 선한 마음으로 시작한 작은 행동이 마음을 풍족하게 채워 준다고 믿고 상대방에게 먼저 다가가 보면 어떨까요?



# 선행의 바람은 사람의 향기와 품격이다

‘선심’이라는 주제로 원고 청탁을 받았다. ‘한 사람의 선심은 백 명의 사람에게 전달된다’ 혹은 ‘한 사람의 선행이 또 하나의 선행을 만든다’는 내용이다. 솔직히 진부한 내용이 될 듯 하여 여러 날 고민하였다. 그러다 <세한도>라는 그림이 떠올랐다. 선심이나 선행은 조금만 마음을 먹으면 가능하다. 그런데 좀 더 심오한 선행은 누군가에 대한 깊은 애정과 인품의 향기가 담긴 것이라고 한다면, 이 그림에는 선행의 품격이 담긴 것을 느낄 수 있다.

국보 제180호인 <세한도>는 자세히 볼수록 그 안에 서려 있는 결기와 단호함이 돋보인다. 그림 자체는 단색조의 수묵으로 간결하다 못해 어설피 보이지만 일부러 선택한 듯한 마른 붓질이 빚어내는 단단함은 어떤 그림에서도 찾기 쉽지 않다. 긴 화면에는 집 한 채와 그 좌우로 지조의 상징인 소나무와 잣나무가 두 그루씩 대칭을 이루며 지극히 간략하게 묘사되어 있을 뿐 나머지는 텅 빈 여백으로 남아 있다. 가로로 긴 지면에 가로놓인 초가와 지조의 상징인 소나무, 잣나무를 매우 간략하게 그린 이 작품은 김정희가 지향하는 문인화의 세계를 잘 보여 준다.

흔히 <세한도> 하면 김정희를 떠올린다.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 그림의 진짜 주인공은 우선(藕船) 이상적(李尙迪, 1804~1865)이다. 그는 추사의 제자이며, 역관이었다. 추사는 조선 후기 내로라하는 가문 출신이었고 뛰어난 천재였다. 그러나 정쟁에 휘말려 부자가 함께 유배되었다. 잘나갈 때는 그 집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던 이들이 발길뿐 아니라 교류도 끊었다. 그게 세태다. 이상적은 달랐다. 정승 집 개가 죽으면 문상을 가도, 정승이 죽으면 문상을 가지 않는다는 세태를 비웃듯 이상적은 단 한 번도 스승 김정희에게 소홀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지극히 대하였다. 그는 공식적으로 중국을 오가면서 많은 부를 축

적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자기 돈까지 보태 유배지에서 외로울 스승에게 수많은 책과 용품을 꾸준히 보냈다. 김정희는 그런 이상적의 인품을 소나무와 잣나무에 비유하여 이 그림을 그려 준 것이다.

이 그림의 제목인 <세한도>는 『논어』에서 따왔다. “歲寒然後知松柏之後凋也(날씨가 차가워진 후에야 송백의 푸름을 안다)”의 구절이다. 발문의 “今君之於我由前而無可焉. 由後而無損焉. 然由前之君無可稱 由後之君亦可見稱於聖人也耶(지금 그대도 내게 이전에도 더함이 없고 이후에도 덜함이 없다. 그러나 이전의 그대는 칭찬할 게 없다면, 이후의 그대는 성인의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는 그 심정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김정희가 <세한도>에 이런 글을 따로 쓸 정도이니 이상적이 김정희를 어떻게 대했는지 미루어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이 그림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감동은 김정희의 시와 그림도 있지만 그와 함께 이상적의 사람됨에서 오는 따뜻함이다.

이 그림의 품격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세한도>는 이상적의 제자였던 김병선이 소장하다 그의 아들 김준학이 물려받아 감상기를 적어 놓았다. 이후 민영휘 집안이 소유했다가 경성제국대학 교수이며 동양철학자였고 추사 연구가인 일본인 후지쓰카 지카시(藤塚隣, 1879~1948)에게 팔아 넘겨 후지쓰카를 따라 도쿄로 건너가게 되었다. 후지쓰카는 20세기 초에 한국 인사동 서점가를 발이 닳도록 돌아다니고 수집하며 김정희의 학문과 예술을 낱알이 밝혀내었다. 그는 추사를 사랑한 사람이었다.

<세한도>에는 또 한 사람의 아름다운 인품이 담겨 있다. 바로 소전 손재형이다. 유명한 서예가이며 고서화 수장가인 손재형은 <세한도>가 후지쓰카의 소장품이 된 것을 알고 거금을 싸 들고 현해탄을 건너갔다. 그러나 거절당하였다. 김



정희의 학문과 예술 세계에 흠뻑 빠진 후지쓰카가 김정희의 최고의 작품을 내줄 리 만무하였다. 게다가 그는 병석에 누워 있었다. 하지만 손재형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석 달 동안 병석에 있는 후지쓰카를 아침저녁으로 문안하였다. 그야말로 신발이 해지고 무릎이 헐 정도였다. 마침내 손재형의 정성에 감복한 후지쓰카는 그 작품을 손재형에게 넘겨주었다. 당시 손재형이 기와집 열 채 값을 건넸지만 후지쓰카는 거절하였다. “내가 이 그림을 돈 받고 판다면 훗날 지하에서 추사 선생을 무슨 낮으로 뵈겠소? 그래도 그 후손인 조선 사람에게 건넬 수 있으니 내가 고맙소.” 후지쓰카의 인품 또한 보통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김정희의 <세한도>는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올 수 있었다. 후지쓰카는 김정희에 관한 수많은 자료를 모았는데 태평양전쟁 말기 미군의 폭격으로 거의 다 불타 버렸다. 손재형이 조금만 늦었어도 어쩌면 그 그림은 잿더미가 되어 영영 사라졌을지 모른다. ‘김정희-이상적-후지쓰카-손재형’으로 이어진 아름다운 인연과 인격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이 그림을 소장하게 된 사람은 훗날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하여 국가의 보물

로 길이 간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감상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그 향기는 계속되었다. 2006년 후지쓰카의 맏아들인 아키나오 후지쓰카 씨가 선친이 갖고 있던 수많은 추사 관련 유품을 추사기념관이 있는 과천시에 기증하였다. 그리고 몇 달 뒤 그도 세상을 떠났다.

나는 이 그림을 떠올릴 때마다 그림을 만들어 낸 인연과 그 그림이 빚어낸 인연의 끈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향기로워 전율하곤 한다.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며 이어지는 인품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선행이 아니겠는가. 나의 선행과 선심이 대가를 바라지 않았더라도 그 값을 인정받지 못하면 섭섭한 게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그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더더구나 좋은 모범이 된다면 그 이상 바랄 것이 또 있을까? 세상은 그렇게 서로 기대고 감싸고 도우며 살아가는 정을 느낄 때 비로소 살 만한 곳이 된다. <세한도>에 얹힌 인연들에 미치지 못해도 그 아름다운 품격을 닮아 가려 한다면, 그리고 그게 내 몫이라면 그건 또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는가. 진정한 아름다움, 인품, 선행은 그렇게 세상의 빛이고 따뜻함으로 간직된다.

#### 김경집(金京執)

가톨릭대학교 인간학교육원에서 인간학을 전담해 가르쳤다. 『앞으로 10년, 대한민국 골든타임』, 『책탐』, 『생각의 융합』, 『엄마 인문학』, 『인문학은 밥이다』 등 다수의 책을 집필하였다. 특히 『앞으로 10년, 대한민국 골든타임』은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의 서재’에도 꽂혀 있어 화제가 되었다. 서평집 『책탐』으로는 2010년 한국출판평론상을 받았다.







# “가장 작기에 가장 절실한 0.5% 아이들이 기댈 든든한 어깨이고 싶습니다”

##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이경림 대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무차별의 원칙, 아동 최우선 이익의 원칙, 생존 및 발달 보장의 원칙, 의사 존중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듯 아동은 국가를 막론하고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다. 그럼에도 국내에는 아동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5만 4,000여 명의 아이들, 그것도 부모가 수용자라는 이유만으로 2차, 3차 피해를 받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 사단법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의 이경림 대표는 이들 ‘가장 작기에 가장 절실한 0.5%의 아이들’이 당당한 목소리를 내는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비밀 친구로서 버팀목 역할을 하며 아이들 곁에서 함께하고 있다.



### 아동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들

세움의 이경림 대표는 오랜 세월 아동 관련 단체에서 일하면서 아버지가 무면허 뺑소니 교통사고를 내 교도소에 가게 된 한 아동을 만났다. 이를 계기로 시설 아이들의 사정을 살펴보기 되었고, 아버지가 교도소로 가게 되면서 시설로 온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부모로 인해 2차 피해를 받는 아이가 있다는 사실과 그 아이들만을 위한 복지 제도가 없다는 안타까운 마음은 2015년 세움을 만드는 데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기존에도 법무부 산하의 교정 복지 단체에서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를 돕는 업무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동 복지, 아동 인권 차원에서 접근해 이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고민한다는 것이 세움만의 차별점이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용자 자녀 인권 상황 실태 조사를 하했어요. 그때 법무부 사회복지과 모 과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53개 교정시설을 전수조사하였습니다. 조사한 수용자들의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 실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수용자 자녀의 실태에 관한 첫 국가 통계 자료가 구축되었죠.”

이경림 대표는 당시 한 사람이 수용되는 순간 그 가족들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5.5배 더 빈곤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 해체되는 가정이 일반 가정보다 5배나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에 가슴 아파하였다. 양육자가 두세 차례 바뀌는 등의 환경 변화는 발달 단계에 있는 아동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가 된다. 심지어 부모의 체포 장면을 목격한 아이도 꽤 있어 그로 인한 트라우마도 심각하다. 부모의 수용 사실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어 아이들은 가슴속에 비밀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

### 배움, 틈움, 채움, 이음으로 실천한다

세움은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를 위해 크게 배움, 틈움, 채움, 이음의 4가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배움’은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달 평균 120명의 미취학 아동과 중·고등학생에게 용돈 차원의 장학금을 전달한다. 특기 적성이 있는 아동에게는 별도의 교육비도 지급하고 있다. ‘이음’은 면회비 지원을 통해 가족 관계를 이어 주는 것이다. 이음의 근처에는 아동은 부모를 만날 권리가 있고, 그 부모가 수용자라고 해서 아이들의 면회권이 차단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방침이 깔려 있다. ‘채움’은 다양한 동아리 활동, 일대일 멘토링, 상담을 통해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다. 마음이 아픈 아이들은 전문 임상심리사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틈움’은 공과금과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위기에 내몰린 가족(가정)에 대해 긴급 생활 지원 활동





과 의료 및 법률 지원을 한다. 그 외에 사회의 인식 개선과 수용자 자녀와 관련된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세움은 사례 관리 방식으로 배움, 틈움, 채움, 이음을 실천하고 있다. 수용자 가족으로부터 의뢰가 들어오면 먼저 전화 상담을 하고 가족이 원하면 가정방문을 한다. 이어 사례 회의를 하고 그 아이에게 맞는 통합 지원을 한다. 이 모든 활동을 1년에 한 번씩 사례 회의를 통해 지속하고 있다. 바로 이 부분, 이러한 활동을 지속한다는 점이 세움 아동 복지 실천의 가장 큰 차별화된 특징이다.

세움은 또한 동아리를 통해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활동도 펼치고 있다. 세움 사무실에는 전문 작가와 사진 동아리 활동을 하는 아이들이 찍은 사진이 걸려 있어 눈길을 끈다. 이경림 대표는 속마음을 표현하기 어려운 수용자 자녀들이 보이지 않는 마음을 보이는 것을 통해 표현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사진 동아리와 사진 전시회를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수용자 자녀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인식을 개선하는 일도 세움이 주력하는 부분이다. 감사하게도 세움의 뜻에 기꺼이 동참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이것이 세움이 생각하는 인식 개선이다.

이경림 대표가 세움을 운영하면서 가장 크게 보람을 느끼고 뿌듯해지는 순간은 미성년 아동이 어엿한 성년이 되어 이제는 세움을 후원하는 지지자로서 훌륭히 그 역할을 할 때이다. “중학생 때 만난 한 아동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행사 프로그램마다 참여하는 성실한 친구였어요.

올해 대학에 들어가 세움의 행사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있는데, 어느 날 후원자 이름에 그 아이의 이름이 있는 걸 보고 말할 수 없이 뿌듯하였어요.”

### 선한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연결하는 가교 역할

“제가 정말 행운인 게 좋은 교정공무원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다는 거예요. 아동을 처음 추천받은 것도 교정공무원을 통해서였죠. 사실 평소에 교정공무원이 수용자에게 관심이 없으면 수용자의 사정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수용자의 가족, 특히 아이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교정공무원분이 계셔서 저희의 부탁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경림 대표는 수용자에 대한 교정공무원 한 명의 관심이 한 가족과 아동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강조한다. 아이들이 세움을 만나 적어도 ‘어떤 어른이 되고 싶다, 어떤 미래를 갖고 싶다’는 희망을 품게 된다면 그건 세움이 아닌 교정공무원이 한 일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아동 관련 일을 30년 가까이 하면서 무엇보다 이 일이 좋았던 이유는 수용자의 가족과 함께하려는 교정공무원이 있다는 점이었다. 교정공무원의 선한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연결하는 것이 세움의 일이라 말한다.

이경림 대표는 처음 만났던 교정공무원 한 분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당시 군산교도소 이만호 교감은 이경림 대표의 말을 듣고 난 뒤 직접 수용자들과 일일이 대화를 나

## 교정공무원들에게 건네는 응원의 메시지

교정공무원들을 대할 때면 늘 고마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수용자 가족들에게 교정시설은 우리 가족을 책임져 주는 곳입니다. 물론 까다로운 민원인도 있겠지만 적어도 제가 만난 가족은 교정시설이라는 말만 꺼내도 소위 말해 꺾뻗 죽습니다. 혹시 우리가 잘못해서 안에 있는 가족이 피해를 받거나 앓을까 하는 마음에 가족들은 교정공무원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내 자식, 내 가족이 수용생활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교정공무원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수용자의 가족과 한 아이, 나아가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누며 아이들의 개인정보를 받아 주었다고 한다. 이경림 대표는 이만호 교감을 통해 선한 마음이 자신은 물론 다른 교정공무원들에게도 전달된 것 같았다고 말한다. 선한 마음을 가진 교정공무원을 여럿 만났고, 그분들의 마음이 연결된 게 지금의 세움을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 교정시설 변화의 움직임이 꼭 이어지기를

이경림 대표는 민간 차원에서 처음으로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을 제안하였다. 2017년 세움의 제안에 법무부 사회복지과와 여주교도소가 함께 동참하였고,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그는 우리나라 모든 교정시설에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을 조성하겠다는 법무부의 지침이 만들어져 더할 나위 없는 보람을 느낀다. 세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 이 일에 기꺼이 동참해 준 여러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을 아끼지 않았다. 법무부 사회복지과가 파트너로서 함께 협력한 것이 큰 사회적 영향력을 미쳤고, 수용자 미성년 자녀 보호 관련 내용이 형집행법에 추가되는 커다란 시금석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교정시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바람을 내비추었다.

제일선에서 일하는 교정공무원들은 하루하루 많은 업무량에 쫓긴다. 그동안의 교정은 보안, 다시 말해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행량을 무사히 마칠 때까지 보호하는 것이 큰 역할 중 하나였다. 더욱이 수용자의 가족과 관련된 일을 처리하기에는 사회복지과의 업무가 과중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에서 하루에 두 가정이 면회를 진행하는 경우 한 가정당 1시간에서 1시간 30분이 소요되는데 이 시간에

교정공무원이 같이 있어야 해서 다른 업무를 할 수가 없다.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이 생긴 것 자체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 충실하려면 교정공무원이 그 일에 충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교정공무원의 수를 늘려야 한다. 한발 더 나아가 수용자 가족에 대한 교정공무원의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장에서 일하는 교정공무원이 수용자의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아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다양한 교육과 기회를 만들었으면 한다는 게 이경림 대표의 바람이다.

교정공무원들을 대할 때마다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이 든다는 그는 교정공무원이 수용자의 가족과 아이들에게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환경과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용자 가족의 이야기를 충분히 모르면 도움이 필요한 자녀의 이야기를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5년간 세움 활동을 해 오며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해요. 처음 설립할 당시만 해도 수용자 자녀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보와 데이터가 너무 없어서 힘들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관련 검색어를 치면 관련 내용이 한 페이지를 넘지 않을 정도였으니까요. 지금은 수용자 자녀를 검색하면 다양한 자료가 있어요. 그만큼 인식이 개선되었다는 방증이겠죠. 이런 사회적 관심이 모두 세움이 이룬 것은 아니지만 세움 자체가 만들어져서 활동한 작은 결과라고 자부합니다.”

다행히 사회적으로 수용자 자녀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법무부도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경림 대표는 조금 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제도가 바뀌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 화해와 포용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다 넬슨 만델라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자 남아프리카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Nelson Mandela)는 인권을 유린한 백인들에게는 용서로써 깨달음을 전하고, 흑인들에게는 자유와 포용에 대해 일깨워 줌으로써 인종차별에 큰 경종을 울렸다. 화해의 상징이 된 그가 평생을 바쳐 전한 메시지는 자유와 평화 그 이상의 의미로 남아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다.

## 인권 운동가가 된 ‘롤리탈라’

7월 18일은 UN(국제연합)이 선포한 ‘만델라의 날’이다. 넬슨 만델라가 67년 동안 사회에 공헌한 점을 기리자는 뜻에서 그의 생일만큼은 67분 동안 주위를 돌아보고 봉사 활동을 하도록 권장한 것이다. 한평생 인권 운동에 앞장선 넬슨 만델라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들려준 민담의 영향을 받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

늙고 병들어 보잘것없는 어느 여인이 길을 가던 여행자에게 눈곱이 낀 자신의 눈을 닦아 달라고 청하였다. 그러나 여행자는 여인의 부탁을 무시했고, 여인은 다른 여행자에게 같은 부

탁을 할 수밖에 없었다. 부탁을 받은 한 여행자가 여인의 눈곱을 닦아 주었는데, 그 순간 여인이 젊고 아름답게 변신해 여행자와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 이 동화 같은 이야기는 어린 만델라의 가슴에 오래도록 남아 그가 이 세상을 미덕과 관용으로 이끌어 가는 데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였다. 이야기 속 여행자처럼 만델라는 백인들의 눈을 가린 인종차별의 눈곱을 떼주는 역할을 서슴지 않았지만, 그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1918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의 한 작은 마을에서



“  
 삶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았다는 단순한 사실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가  
 우리 삶의 의미를 결정할 것이다.

— 넬슨 만델라

태어난 넬슨 만델라의 원래 이름은 ‘물리탈라’였다. 부족의 족장이었던 그의 아버지가 ‘장난꾸러기’라는 의미의 이름을 지어 주었는데 훗날 학교에 다니면서 ‘넬슨 만델라’라는 영국식 이름을 갖게 된 것이다. 1815년부터 남아공을 지배한 영국은 공공연하게 인종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만델라는 대학교에 다니던 중 친구가 백인에게 모욕당하는 것을 목격하며 이 같은 부당함을 처음으로 자각하였다. 이후 변호사가 되겠다는 꿈을 키우다 마침내 흑인으로는 최초로 법률 상담소를 열면서 본격적으로 인권 운동가의 길을 걸었다. 만델라가 법률 상담소를 열었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흑인 인종차별주의가 정점으로 향하던 때였다. 백인 정당이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라는 차별법을 제정해 인종 분리 정책을 시행한 것이다. 흑인은 정치에도 참여할 수 없었을뿐더러 공공시설이나 식당은 물론이고 버스나 열차까지 백인이 이용하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없었다. 이에 만델라는 적극적으로 인권 운동을 펼치며 저항했지만 끝내 정치범으로 몰려 종신형을 받고 말았다.

#### 용서와 화합을 전한 정의로운 거인

● 만델라가 세계 인권 운동의 상징적인 존재로 널리 알려진 이유는 무려 27년이라는 긴 수용생활을 마친 후 그가 보여 준 행보가 남달랐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감옥에서 복수심과 증오를 품는 대신 화해와 용서가 바탕이 되는 인권 운동의 의지를

다졌다. 실제로 1990년 석방된 후 대통령에 당선된 그가 흑인들에게 한 말은 “용서하되 잊지 말자”는 것이었다. 만델라는 참회하는 백인들이 진정으로 뉘우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고 흑인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포용력으로 이끌었다. 덕분에 오랜 갈등에서 점차 벗어난 남아공은 정치, 경제적인 발전을 이룩과 동시에 여러 인종의 대립으로 고통받던 다른 나라에 큰 귀감이 되었다.

1995년 남아공에서 열린 럭비월드컵은 세계 평화와 화합을 위해 힘쓴 만델라의 일화로도 유명하다. 당시 남아공에서 럭비는 백인들만의 전유물로, 흑인들이 상대 팀을 응원할 정도로 흑백 갈등을 여실히 보여 주는 상징과도 같은 스포츠였다. 만델라는 수시로 럭비 팀을 찾아가 격려했고 대회 직전, 대표팀이 흑인 어린이들에게 직접 럭비를 가르쳐 주는 이벤트까지 마련될 정도로 분위기가 반전되었다. 응원에 힘입은 남아공 럭비 팀은 세계 최강인 뉴질랜드를 꺾고 우승해 감동의 역사를 새로 썼고 이 실화는 영화 <우리가 꿈꾸는 기적: 인 빅터스>로도 제작되어 또 한 번 많은 사람의 가슴을 울렸다.

2013년, 향년 95세를 일기로 타계한 넬슨 만델라의 장례식에 참석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추모 연설에서 “만델라로부터 영감을 얻은 수많은 사람 중의 한 명”이라고 말하며 “만델라는 역사의 거인이었다”고 회상하였다. 그가 떠난 뒤에도 여전히 전 세계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인종차별이 이어지며 많은 갈등과 투쟁을 야기하고 있지만, 그가 전한 평화의 메시지는 잊히지 않는 빛으로 수많은 사람의 가슴속에 살아 있다.



## 〈교정〉 독자에게 들어 보는 ‘선심’

11월호 월간 〈교정〉의 테마는 ‘선심’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풀면 내 마음이 온기로 가득 채워진다고 합니다. 교정공무원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언제나 따뜻한 시선으로 수용자를 대합니다. 어쩌면 교정공무원이야말로 선심과 가장 어울리는 직업이 아닐까요? 이번 호 주제인 ‘선심’과 관련하여 독자 여러분의 생각과 에피소드를 들어 보았습니다.

교정공무원이 되고 30년 가까이 수용자와 상담을 하면서 지내 왔습니다. 수용자들을 상담하다 보면 안타까운 사연이 많습니다. 출소 후에 돌아갈 가정, 반겨 줄 가족이 없는 이들도 있죠. 교정행정은 수용자를 따뜻한 시선으로 대하고 사회 복귀를 적극 돕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수용자들도 똑같은 사람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인간적으로 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수용자가 변화되는 걸 발견하게 되죠. 우리 교정공무원들이 선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본다면 수용자를 충분히 교정교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공주교도소 교위 이수인〉

올해 네 살이 된 딸의 동영상과 사진을 보다  
문득 사랑에 대한 시가 떠올랐습니다. 사랑은  
선심의 또 다른 말이 아닐까요? 제 마음을  
선하게 만드는 딸이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 사랑? 별거 있나?

네가 웃고 있으면 따라 웃음이 나고  
버럭 화를 내면 가만히 기다려 주고  
슬퍼하면 토닥토닥 꼭 안아 주며  
가끔 이해 안 되는 궤변에도 공감해 주고  
내 어설픔고 약한 모습 보여 주기 싫어  
강한 척 쿨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사람,  
오늘도 사랑, 너를 보며 하루를 버틴다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교사 박미애〉



선심은 '착할 선(善)' 자를 써서 선한 마음이라는 뜻도 있지만, '먼저 선(先)' 자를 쓰면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마음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동료들을 위해 한발 먼저 나서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교정공무원의 진정한 선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구치소 교도 임태규>

오래전부터 노숙자들의 자활을 돕기 위한 단체에서 식사 준비와 배식 등의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힘든 것이 배식인데, 반찬으로 고기가 나오면 남들보다 더 빨리 많이 먹으려고 아우성을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양을 주는데도 더 달라고 요구하면 참 난감하죠.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처음에 3분의 2 정도만 배식하고 나머지를 추가로 배식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숙자분들이 모두 흐뭇해하였습니다. 저도 힘이 덜 들면서 기쁘게 배식을 하고 또 노숙자분들도 더 받는다는 생각에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게 되었습니다.

부디 그 음식을 드시는 모든 분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하우속히 사회에 복귀하고 또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으면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사회가 건강하게 거듭날 것이고 또 밝은 미래가 도래하겠죠.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인천구치소 교감 인치견>

수용자를 대하는 교도관은 관심 같은 선심이 필요합니다. 수용자는 수용생활 규정이나 규칙 등을 알지 못한 채 입소하게 됩니다. 수용자들이 서로서로 규정에 대해 설명해 주고 가르쳐 주지만 정확한 정보가 아닐 수도 있죠. 교도관들의 선심은 수용자들을 위해 규정을 찾아보거나 규정을 알려 줄 수 있는 직원을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수용자의 재판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아주고 말을 걸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수용자에 대한 관심이 곧 선심인 것이죠. 선심과 관심을 보이면 교정사교가 예방될뿐더러 수용자의 안정된 수용생활을 이룰 수 있습니다!

<수원구치소 교사 강정훈>

\* 월간 <교정>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 호 테마 주제와 관련된 독자분들의 에피소드나 관련 생각을 적어 보내 주세요,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 드립니다. '추억을 담다'는 마지막 페이지의 엽서와 메일 그리고 QR코드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신청  
메일 주소

correct2015@naver.com  
yjw1219@korea.kr





# 민원인과 민원실 직원들이 함께 누린 행복 현장

## 수원구치소 민원실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들의 발걸음은 무겁고 표정은 어둡다. 그런 민원인을 맞는 민원실 직원들은 행여나 민원인의 마음이 다치지 않을까 매순간 몸을 낮추고 최선을 다한다. 수원구치소 민원실, 하루에도 수백 명의 민원인을 상대하는 이곳에 교정본부가 행복을 배달하러 찾아갔다.





### 민원인도 함께 받는 특별한 행복 배달

수원구치소를 이끌고 있는 이영희 소장에게 민원실 직원은 언제나 애뜻하고 고마운 존재이다. 교도소가 아닌 구치소는 그 특성상 민원인의 변동 사항이 클 수밖에 없어 민원실 직원들은 매번 새로운 민원인을 맞이하고 새로운 고충과 맞닥뜨린다. 이런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영희 소장은 민원실 직원들에게 늘 마음이 쓰였다. 그래서 ‘교정은 행복을 신고’ 코너가 수원구치소 민원실을 찾아온다는 소식에 누구보다 기뻐한 사람 역시 이영희 소장이었다. 엄마의 마음으로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이 잠시나마 시름을 잊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랐다.

이번 수원구치소 민원실에 배달하는 ‘행복’은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른, 아주 특별한 점을 하나 자랑한다. 보통 교정기관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던 행복 나눔에 처음으로 민원인들까지 포함시킨 것이다. 민원인들이 민원실 직원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니..., 얼핏 들어도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을 정도로 놀라운 상황이었다.

‘교정은 행복을 신고’ 행사 당일 모두가 약속 시간에 맞추어 선물과 간식 꾸러미를 안고 수원구치소 민원실로 이동하였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예쁜 풍경 하나가 일행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국화 너는 우리에게 노오란 가을향기를 선물했다”라는 이영희 소장의 아름다운 시 구절과 노란색, 보라색 국화로 흐드





러지게 꾸며진 화단이었다.

“민원과의 송용진 교위가 매년 계절에 맞추어 자발적으로 꽃을 가꿉니다. 해바라기, 코스모스에 이어 이번에도 휴일에 일부러 나와 가을 국화를 이렇게 예쁘게 심어 놓았어요. 힘든 마음으로 오는 민원인들이 잠시나마 시름을 잊고 여유를 찾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이지요.”

늘 송용진 교위와 함께 화단을 가꾸고 있는 김공검 민원과장이 따듯한 미소로 설명해 주었다.

업무 마감 시간이 된 민원실은 어느새 근사한 파티장으로 바뀌어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치킨과 피자, 음료수가 한가득 차려졌는데 의자는 구석으로 치워진 모습이였다. 이는 모두가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오늘 행사를 스탠딩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이내 ‘교정은 행복을 싣고’의 트레이드마크인 현수막이 걸리자 직원들 모두가 함박웃음을 감추지 못하였다. “교정지에서나 보던 걸 민원실에서 보니까 신기하다”는 말이 들려 왔다.

### 즐거운 게임, 푸짐한 선물은 덤

행사 진행을 맡은 교정기획과 윤종웅 교위가 먼저 나섰다. “2016년부터 시작한 직원 격려의 자리에 오늘은 이렇게 민원인들까지 함께해 의미가 남다릅니다. 부디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라는 인사에 큰 박수를 보내는 민원실 직원들. 이영희 소장 역시 “여러분이 나중에 교도관을 퇴직한 뒤 기뻐던

날을 회상하였을 때 오늘을 떠올릴 수 있도록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랍니다”라고 덕담을 남겼다.

딱 배고플 시간에 차려진 푸짐한 간식에 모두의 손과 입이 바빠졌다. 세 팀의 민원인 가족들 역시 직원들과 한데 섞여 답소를 나누며 피자과 치킨을 즐겼다.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식을 구치소에 두고 아내는 면회를 올 때마다 울지만 언제나 늘 따듯한 배려와 친절을 아끼지 않는 구치소 직원 여러분 덕분에 힘을 얻고 갑니다.”

민원인 자격으로 참여한 배민수(가명) 씨 부부, 손영수(가명) 씨 부부, 이고은(가명) 자매가 교정본부에서 마련한 행사에 참석한 소회를 밝혔다.

모두가 배를 든든하게 채운 뒤 본격적인 게임 시간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 게임은 초성 맞추기 퀴즈였다. 본격적인 게임에 앞서 외식 상품권, 백화점 상품권, 기프트콘, 블루투스 이어폰, 무선 핸드폰 충전기 등 푸짐한 선물이 먼저 소개되자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빨리 시작합시다!”라는 누군가의 외침에 와르르 웃음이 터지기도 하였다.

퀴즈가 공개되자 직원들 사이에서 금세 정답자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직원들의 귀땀으로 민원인들도 속속 퀴즈를 맞혔다. 첫 번째 게임으로 슬금슬금 분위기가 달아오르자 연달아 두 번째 게임이 시작되었다. 바로 ‘참참참! 게임’이다. 공격하는 손의 방향과 방어하는 얼굴이 반대 방향으로 가야 수비에 성공하는







방식이다. 4개 조로 나누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게임을 하는데 다들 그야말로 열광의 도가니였다. 어색해하던 민원인들 역시 주변의 응원과 웃음소리에 아주 열정적으로 게임에 참여하여 민원실 직원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

이를 지켜보던 김공겸 민원과장의 표정이 얼마나 환해졌는지 모른다. “하루에 500~600건이나 되는 접견 업무를 소화해 내는 직원들이 다 함께 모여 이토록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그 저 흐뭇합니다”라며 연신 미소를 지었다. 어렵게 모인 민원인들의 미소도 김공겸 민원과장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었다.

### 모두의 가슴속에 행복 자양분이 되길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에 등장한 ‘손병호 게임’이다. 질문을 듣고 그에 해당하면 다섯 개 손가락을 하나씩 접는 방식인데, 게임을 소개하자마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알고 보니 직원 중에 게임과 이름이 같은 김병호 교도관이 있었던 것. 게임 이름만 말하였을 뿐인데 벌써 웃음이 나오는 것을 보니 출발이 좋다. 누가 얼마나 기상천외한 문제를 내서 상대를 탈락시키느냐가 관건이라 다들 심사숙고하는 모습이었다.

“대머리 접어.”

다들 폭소하며 데굴데굴 구르다시피 하였다. “대머리의 기준이 뭐냐”부터 시작해 서로의 머리를 보며 빨리 접으라고 놀리는 모습에 웃음을 참지 못한 것이다.

긴 머리를 자랑한 김하영(가명) 민원인 역시 “나보다 머리 짧은 사람 다 접어”라는 센스 넘치는 말로 웃음과 함께 직원들 대부분의 손가락을 접게 만들고, “단추가 8개 이상인 사람 접어”라고 문제를 낸 이효순(가명) 민원인 때문에 근무복 단추를 세는 때아닌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안경 안 낀 사람 다 접어” “어제 집에 안 들어간 사람 다 접어” “운동화 안 신은 사람 다 접어” 등 치열한 각축전 끝에 마침내 최종 승자가 가려졌다. 직원들과 민원인들 모두가 환호성과 박수로 유쾌하게 보낸 시간에 자축의 박수를 보냈다.

“울거나 우울한 마음으로 들어왔던 민원실에서 모처럼 아픈 기억을 잊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갑니다. 앞으로는 좀 더 밝은 기분으로 이곳 민원실에 방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가족처럼 따뜻하게 맞아 주시는 수원구치소 민원실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민원인들의 소감에 이어 윤희영 교위도 밝은 미소로 이야기를 덧붙였다.

“처음에는 다소 어색해하셨던 민원인분들이 뒤로 갈수록 밝은 얼굴로 게임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흐뭇하였습니다. 언제나 직원들 모두가 최선을 다해 민원인들을 모시려고 노력하는데 오늘 이런 모습을 보니 좀 더 많은 민원인을 모시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교정본부에도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과장부터 막내 직원까지 함께하여 모두가 환한 웃음으로 마무리한 ‘교정은 행복을 신고!’

올해의 마지막 코너였기에 더욱 의미 깊었던 이 시간이 모두의 마음속에 오래 남아 행복의 자양분이 되기를 빌어 본다.

직원 힐링 이벤트에 참여하고 싶거나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행복을 전하고 싶은 분들은 맨 뒤 페이지에 마련된 엽서 또는 우측 QR 코드, 아래 메일을 통해 신청해 주세요.

참여 신청  
메일 주소 correct2015@naver.com  
yjwt1219@korea.kr





# 점토의 변신은 무죄! 화려한 도자기가 되는 마법

공주교도소 교위 이수인 가족



한평생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 휴일까지 반납해 가며 소외 계층을 찾아다니는 사람. 주변 사람들은 공주교도소 이수인 교위를 이렇게 말한다. 휴일이면 해 뜰 때까지 늦잠을 자거나 가족들과 외식하러 나갈 법도 하지만 그는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러 가기 위해 부지런히 집을 챙기곤 한다. ‘영화 같은 하루’를 위해 집을 나선 일요일, 이수인 교위가 이번에는 남은 물론 가족과 자신도 챙겨 보기로 하였다.



## 봉사하는 도예가를 초대합니다

충청북도 청주의 한 카페에 들어서니 한쪽 벽면에 각양각색의 도자기가 가득하다. 독특한 무늬와 색감이 단번에 눈길을 사로잡았다. 수공예로 하나하나 정성스레 만든 도자기의 출처는 바로 옆에 자리한 도자기 공방 ‘헨온테이블’이다. 도자기 체험도 하고 도자기에 담긴 향긋한 차도 마실 수 있다. 카페 안을 두리번거리니 이수인 교위와 그의 가족, 도예가 제이미 박이 취재팀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이수인 교위는 이곳 도자기 공방과 카페가 특별한 장소라고 말한다.

“공방을 운영하는 제이미 박 선생님이 공주교도소와 인연이 깊어요. 올해에 6개월 동안이나 수용자들을 위해 무료로 도자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거든요. 지금은 청주교도소에서 도예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수인 교위는 가족과 돈독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좀 더 의미 있게 ‘영화 같은 하루’를 보내고 싶었다고 말하였다. 교정공무원이란 봉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직업이며 늘 나보다 남을 먼저 위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란단다. 그래서 영화 같은 하루에 도예가 제이미 박을 초대하여 고마움을 전하고자 하였다. 이수인 교위의 아내 이재숙 씨는 봉사에 전념하는 남편에게 서운함보다는 자랑스러움을 느낀다.

“남편은 취미로 하는 색소폰, 기타 연주와 풍물놀이도 봉사 활동에 활용한다니까요. 아무도 못 말려요, 정말. 그래도 저는 남편이 좋은 뜻으로 하는 일이라면 긍정적으로 협조해 주는 편이에요. 오늘도 제이미 박 선생님과 함께하고 싶다가에 흔쾌히 그러자고 했어요.”

도예가 제이미 박은 이수인 교위 가족과 취재팀을 위해 따뜻한 차와 과일을 내오며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처음 만난 사람의 경계심을 단번에 풀어 버리는 환한 얼굴이다. 식사를 한 다음 차를 마시는 게 일반적이지만, 귀한 인연에게 무엇이든 선물하고 싶은 마음이 앞섰나 보다.

## 똑같이 둥근 점토, 제각각 다른 도자기로 다져

서로에 대해 소개하고 이해하는 시간은 점심 식사 자리에서도 이어졌다. 잠자코 대화를 듣고 있던 딸 헤람이는 토종닭으로 요리한 닭볶음탕을 먹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올해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두 달 전에 아빠처럼 교도관이 되기로 진로를 정했단다. 교정공무원 가족을 대상으로 한 참관 행사에 참가하였던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번 영화 같은 하루에 참여하면서 아빠가 하는 일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동안 아빠가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다가 퇴근하는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 다양한 봉사 활동을 하신다는 걸 알게 되어 조금 놀랍네요. 저도 교도관이 되면 수용자들과 이웃들에게 봉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유롭게 식사를 마친 가족들은 도예가 제이미 박과 함께 다시 공방으로 돌아와 도자기 만들기에 열중하였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점토를 손으로 다지는 작업이다. 점토 안의 공기를 빼 주어야 구웠을 때 기포가 생기는 걸 막을 수 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너무 흔하게 써 진부하기까지 한 속담이 그 어느 때보다 잘 들어맞는다. 가족들은 정성스럽게 점토를 빚으며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 점토로 어떤 도자기를 만들지, 만든 도자기를 누구를 위해 어떻게 쓰고 싶은지 말이다. 줄곧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해 온 이수인 교위도 이번만큼은 ‘나만의 컵’을 만들기로 결심하였다.

“둥근 점토 가운데를 손가락으로 눌러 홈을 만든 다음 옆을 일정한 굽기와 높이로 세우면 됩니다. 밑에서 홈을 누르듯이 올려야 해요. 구우면 20% 정도 크기가 줄어들니 크기를 좀 더 넉넉하게 잡는 게 좋아요.”

도예가 제이미 박의 설명에 따라 이수인 교위가 컵 모양을 잡는다. 손놀림이 투박한 테다 솜씨까지 서툴러 뜻대로 모양이 나오지 않는다. 똑같이 컵을 만들기로 한 헤림이의 꼼꼼하고 부드러운 손길과 대조되어 보였다. 이재숙 씨도 손재주가 남다른 딸의 작품을 보고는 더욱 도예 작업에 집중하였다. 밀대로 점토를 평평하게 편 다음 컴퍼스로 원을 그리고, 원 바깥의 자투리 점토를 잘랐다. 그다음 테두리를 손가락 한 마디 높이만큼 세웠다. 꽤 그럴싸한 접시 모양에서 살림 고수







의 향기가 폴폴 나는 듯하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점토를 만져 보네요. 도자기에 음식을 담으면 음식이 확 살아나거든요. 다 만들면 딸에게 사과 깎아 줄 때 사용하고 싶어요. 접시는 구멍과 테두리 선을 없애야 깨지지 않는대요. 스펀지로 마무리 작업을 잘해야 할 것 같아요.”

#### 도자기 완성의 마지막 과제는 차분한 기다림

가족들이 점토로 모양을 거의 다 잡았을 때쯤 이수인 교위는 골똥한 표정으로 컵을 바라보았다. 계속 빚다 보니 컵 둘레가 너무 커졌다. ‘무게가 꽤 나갈 텐데 이걸 한 손으로 들고 물을 마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화분으로 쓰는 게 어때요?”라는 취재팀의 제안에 이수인 교위는 다시 점토를 매만졌다. 순식간에 점토는 컵에서 화분 모양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화분을 만들다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였다. 물구멍을 뚫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이수인 교위는 도예가 제이미 박에게 조언을 구하고 화분이 아니라 국수 그릇을 만들기로 결정하였다. 처음에 상상했던 컵도, 싱싱한 꽃을 키울 수 있는 화분도 아니지만 직접 만든 국수 그릇이 마음에 드는 눈치다.

원하는 대로 조금만 만지면 금방 모양이 바뀌는 게 도자기 만들기 재미인 것 같다. 이수인 교위는 수용자도 마찬가지로 생각했으리라. 교도관이 되고 싶다는 딸에게 줄곧 수용자를 대하는 교정공무원의 자세에 대해 조언해 주었으니 말이다. 교정공무원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노력하면 수용자들이 교정교화되기 때문일 것이다. 교정공무원의 아내로 살아온 이재숙 씨도 수용자가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믿는다. 수용자나 출소자가 이수인 교위에게 보낸 편지 문치가 그 증거다.

“남편이 받은 편지가 집에 한가득 있어요. 주임님 덕분에 많은

걸 할 수 있었다, 고맙다는 내용이 담겨 있죠. 그 편지를 읽으면 절로 눈물이 주르륵 흘러요.”

도예가 제이미 박은 도자기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용자들이 주도적으로 도자기를 만들면서 변해 가는 것을 지켜봐 왔다. 손 물레를 이용하면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도자기를 만들 수 있어 수용자들이 쉽게 성취감을 얻는다. 그는 이수인 교위 가족에게도 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차분하게 만든다면 누구나 도자기를 완성할 수 있다고 조언하였다. 그리고 가족들이 완성한 컵과 접시, 국수 그릇을 뿌듯하게 바라보았다.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말린 다음 초벌을 하고, 유약을 발라 재벌하는 과정을 거쳐야 해요. 도자기가 완성되려면 앞으로 3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리죠.”

가족들은 아직은 흠에 지나지 않은 점토를 바라보며 어떤 도자기가 나올지 기대한다. 헤림이는 “주말에 맛있는 것도 먹고 처음 도자기도 제작해 볼 수 있어 더더욱 즐거웠다”며 환히 웃었다. 한 달 뒤 헤림이는 어떤 모양의 컵을 쓰고, 어떤 접시로 사과를 담아 먹을까. 뭉뚱한 점토가 도자기가 될 때까지 가족들은 들뜬 마음으로 인내한다. 서툰 솜씨로 다진 점토가 반짝이는 도자기가 되는 마법이 이수인 교위 가족에게도 곧 펼쳐질 것이다.

직원 힐링 이벤트에 참여하고 싶거나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행복을 전하고 싶은 분들은 맨 뒤 페이지에 마련된 엽서 또는 우측 QR 코드, 아래 메일을 통해 신청해 주세요.

**참여 신청  
메일 주소** correct2015@naver.com  
yjwt1219@korea.kr





# 허무하게 흘러보낸 휴일, 더 잘 쉬기 위해 필요한 것

아근을 한 다음 날 찾아온 비번. 교도관 A 씨는 휴일이면 언제나 나무토막이 되곤 한다. 새벽까지 열심히 일했으니 피로감을 느끼는 건 당연하지만, 그걸 핑계로 항상 아무것도 하지 않는 비번일을 보내다 보니 어쩐지 허무하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 남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다들 휴일을 알차게 보내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늘 이렇까 싶어 자괴감까지 들 지경이다. 휴일을 잘 보내는 시간 관리 비법은 무엇일까?

## 쉬는 것이 고민이 된 요즘

교도관 A 씨는 요즘 쉬는 것이 고민입니다. 교도관 생활 3년 차, 업무 피로도가 쌓여서일까요? A 씨는 최근 들어 비번일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늘었습니다. 누운 채로 TV를 보거나 잠을 자면서 하루를 보내고 나면 어쩐지 시간을 낭비하였다는 생각에 죄책감마저 듭니다.

‘잘 자고 잘 먹으면 잘 쉬는 것’이라고 생각하려 해도 자기 계발을 하며 휴일을 보냈다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대로 뒹처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고개를 듭니다. 게다가 꼬박꼬박 끼니도 먹고 반쯤 누운 채로 주전부리를 하는 횟수가 늘다 보니 몸무게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운동이라도 할까 싶어 동네 피트니스센터에 가 보았지만 단조로운 운동에 쉽게 싫증을 내는 스타일이라 오래 지속하지 못하였습니다. 피로도가 높은 탓인지 격렬한 운동은 할 수도 없습니다.

집에 누워 텅굴며 휴일을 보내는데도 어쩐지 피로는 해소되지 않는 것 같고, 시간을 낭비한다는 생각에 후회는 커져 갑니다. 그렇다고 남들처럼 하려니 피로가 중첩되는 기분이고, 반대로 남들처럼 하지 않는 건 뒹처지는 것 같아 걱정됩니다. 이젠 슬슬 가족들 눈치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대체 비번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 것일까요?





## '나를 위한 휴식'은 '루틴' 짜기부터

A 씨의 성격이 '남들은 알 바 없다, 나는 내 길로 간다'는 쪽이라면 사실 이런 고민은 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대개 사람은 타인의 시선을 어느 정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내린 결정을 의심하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이래도 되나?' '내 판단이 맞을까?' 등. 누구나 하는 고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언가를 결정할 때 정말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그것이 나를 위한 일이 맞는가'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인가'입니다. 정말 원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휴식을 고민해 보아도 좋습니다. 먼저 내가 생각하는 휴식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나에게 맞는 방법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쉬는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나에게 맞는 방법인가를 따져 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과정에서 휴일을 알차게 쓰고 싶다는 욕구와 피곤해서 뭘 할 수가 없다는 판단이 부딪친다면 쉽게 할 수 있는 가벼운 활동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산책이나 뒷산 오르기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근린공원을 산책하면서 사람들도 구경하고 자연을 보며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 봅시다. 자기 계발 욕구를 해소하고 싶다면 책을 읽거나 동영상 강좌를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욕심을 내면 '작심삼일'이 되기 쉬우니 행동에 옮기기 전에 먼저 휴일을 보내는 '루틴(routine)'을 짜아 합니다. 업무를 수행할 때 작업 계획서를 쓰고 실행하듯이 휴일을 보내기 위한 간단한 계획표를 만들고 그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쉬는 데 무슨 계획을 세우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개 유혹에 약하고, 목표가 있을 때 수행 효율이 높아집니다. 계획이라고 해서 시, 분 단위로 촘촘하게 스케줄표를 만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쉬는 날 할 일을 정리하고 목표를 세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목록을 만들고 지워 나가는 즐거움

우선 휴일에 해 보면 좋겠다 싶은 일과 그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해 우선순위를 매긴 뒤, 꼭 해야 하는 일 한 가지와 해 보고 싶은 일 한 가지를 그날의 '미션'으로 삼아 봅시다. 운동, 독서, 자기 계발을 몰아서 하루에 다 해낼 필요는 없



습니다. 한 번에 하나씩, 차곡차곡 결과물을 쌓는 게 중요합니다. 책 한 권을 한 번에 다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은 1장만 읽고 2장은 다음 비번일에 읽어야지'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목표를 당일 아침에 눈을 뜨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어림잡아 보고 '언제쯤 한다'는 식의 계획을 세운 뒤 그에 따라 실천합니다.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넣어도 좋습니다. 비번일이니 늦잠을 자야겠다 싶으면 충분히 수면을 취한 다음부터의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예를 들어 '몇 시쯤 일어나 씻고 점심 식사를 하고 그다음엔 산책을 하고 새로 구입한 자기 계발서 중 1장을 읽고 잠시 쉬었다가 저녁 식사를 한다' 정도면 충분합니다.

수첩을 펼쳐 목록을 정리한 후 휴일이 끝날 무렵에 실행한 것과 실행하지 않은 것을 따져 봅시다. 목표한 것들을 수행했다면 그날의 일과가 보람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과에 익숙해져 있는 경우 가벼운 목표를 수행하는 데에도 약간의 노력이 필요할 수 있으니 계획을 너무 촘촘하게 세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 그날그날의 목표 달성률이 높아지면 분기, 반기, 1년 식으로 장기 목표를 세우고 달성 정도를 점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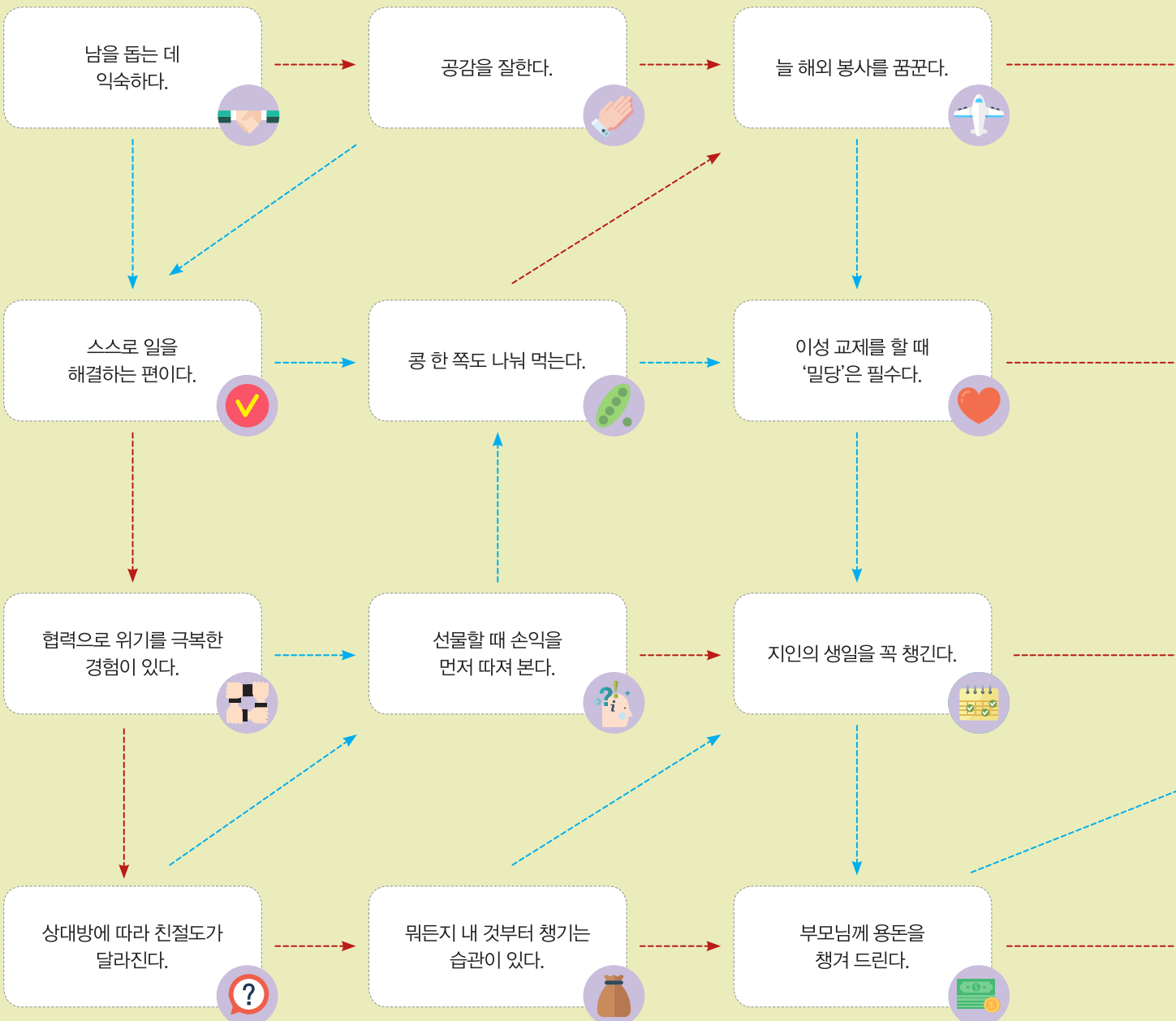
블랙홀을 통해 우주의 비밀을 풀었던 스티븐 호킹 박사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과정이지, 할 수 없는 일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다." 다음 비번일부터라도 목표를 세워 수행해 봅시다. 우주의 비밀은 풀지 못해도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기분으로부터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무엇이든, 시작이 반입니다.



## 다른 사람에게 충분히 베풀고 있나요?

---> YES  
---> NO

START





보통 남을 위해 선행하면 덩달아 내 마음까지 행복해진다고 한다. 서로를 위해 배려하고, 타인의 생활 습관이나 성향, 사소한 습관을 받아들이면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인생을 보낼 수 있다. 평소 충분히 남에게 양보하고 베풀었는지, 숨 가쁘게 달려왔던 수많은 나날을 돌아보자. 그리고 한 달여 남은 2019년에 남을 위해 선행 한번 해 보는 게 어떨까.

참고 서적 『나를 찾아 떠나는 심리여행』(정종진, 시그마북스), 『강신주의 다상담1』(강신주, 동녘)

정기적으로 기부에  
동참한다.



A

### 세상과 사람을 향한 따뜻한 시선

당신은 분명 마음이 따뜻하고 긍정적이며, 남을 잘 살피는 사람일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늘 관심을 기울이며 자신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챙기고 있는데요, '나눌수록 풍요로워진다'는 말이 진실임을 매순간 느낍니다. 상대방의 웃는 모습을 보고 행복 에너지를 얻죠. 이러한 행복 에너지를 다른 사람에게 널리 전파해 보세요. 지역사회 전체가 훨씬 밝아질 것입니다. 행복 에너지로 어둠을 밝혀 주세요!

남을 도우며  
자기만족을 느낀다.



B

### 봉사는 나를 만족시키는 일등 공신

누군가를 돌보며 스스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군요. 타인을 돕는 행위에서 행복을 찾으며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도움을 받아 좋은 결과를 얻을 때 기쁨은 더욱 커집니다. 당신이 더욱 행복한 이유는 자신의 따뜻한 진심이 타인에게도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꺼이 손 내밀어 주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나와 남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당신은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공중도덕은 철두철미하게  
지킨다.



C

### 무엇이든 알아서 해결하는 척척박사

겉으로 보기에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당신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죠. 그러나 자신이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못 본 척해서는 안 됩니다. 남과 도움을 주고받는 게 익숙하지 않겠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보세요. 서로를 도와주고 나눔을 실천할 때 마음이 더욱 건강해짐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선물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좋다.



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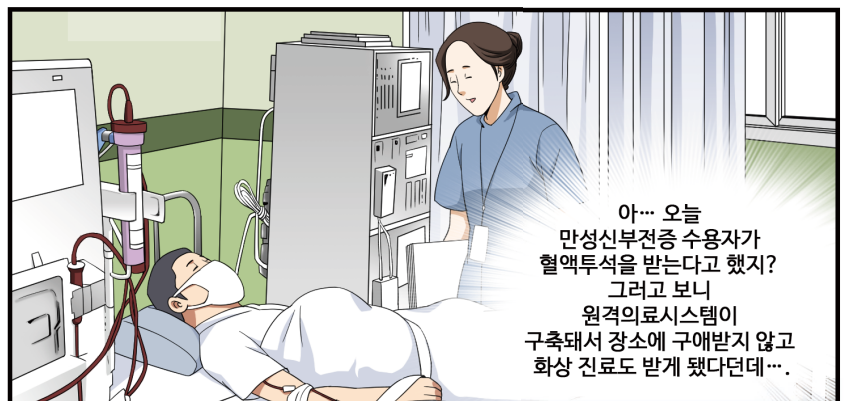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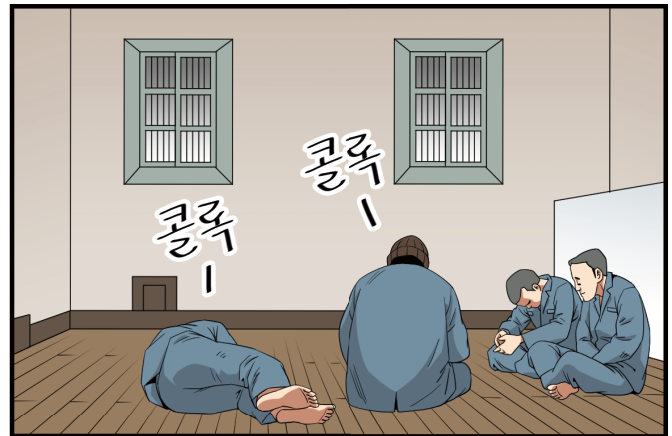
### 나와 타인을 구분 짓는 단단한 울타리

내 사람이라고 여기는 가족과 친구에게는 누구보다 발 빠르게 찾아가지만, 나와 관련이 없는 남에게는 쉽게 마음을 내어 주지 않습니다. 도움을 주기에 앞서 꼭 손익을 계산해 보게 되죠. 당신은 남을 챙기려면 마음이 넉넉해야 한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남을 도우면 내 마음과 에너지가 닳는 게 아니라 오히려 풍요로워집니다. '나눌수록 배가된다'는 말을 믿어 보세요. 타인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내 마음에 여유를 가져다줄 거예요.

의료 처우,  
눈부시게 발전하다









#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항구도시 밴쿠버 + 관광과 관련한 영어 표현

## Vancouver

**위치** 캐나다 서남부

**인구** 631,486명

**면적** 114.71 km<sup>2</sup>

**비행시간** 9시간 40분 소요

**한국과의 시차** -16시간

**소개** 캐나다 서부 최대의 상업 도시이자 태평양으로 통하는 주요 무역 항인 밴쿠버는 미지의 땅에 첫발을 디딘 영국인 조지 밴쿠버 선장의 이름을 따 도시명을 지었다. 1858년 밴쿠버의 프레이저강에서 금이 난다는 소문이 퍼지자 많은 사람이 몰리기 시작하였고 오늘날에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되며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도시가 되었다.

평균 기온 약 25°C의 온화한 기후와 태평양 연안이 펼쳐진 푸른 바다, 사계절을 품는 아름다운 공원이 두루 갖춰져 있어 더 머물고 싶은 도시로도 주목받고 있다.

대자연이 어우러진 평화로운 도시 곳곳에는 사람들이 일군 풍경이 화려한 볼거리를 더한다. 세계적인 수준의 호텔과 건축물, 다양한 국적의 요리를 맛볼 수 있는 레스토랑, 연중 펼쳐지는 다채로운 행사로 매년 수많은 여행자의 발길을 끌이지 않는다. 대자연과 도시 속에서 여유로운 휴식을 만끽하다가도 다양한 레포츠의 매력을 알고 나면 여행 일정을 추가할 수밖에 없다. 태평양에서 부는 바람을 맞으며 즐기는 '세일링'과 '카약킹', 바다 한가운데서 고래를 관찰할 수 있는 고래 투어는 밴쿠버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색다른 즐거움이기 때문이다.

짧은 여행 일정으로 들렀다가 아쉬워서 다시 찾게 된다는 밴쿠버. 산과 바다, 도시와 자연 속에 더불어 한껏 취하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다.







# Vancouver



## 퀸엘리자베스파크

1939년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밴쿠버에 방문한 것을 기념하여 만든 공원으로, 리틀 마운틴이라 불리는 언덕 위에 조성되어 밴쿠버 시내를 감상하기에 좋다. 1만 5,000평의 공원 곳곳에 자리한 화려한 꽃과 울창한 거목, 아기자기한 오솔길이 조화를 이루며 방문객을 반긴다. 언덕 정상부에 있는 유리 온실에서는 아열대식물과 열대 조류를 함께 만나 볼 수 있고, 주말이면 웨딩 촬영을 구경하는 재미도 더 해진다.



## 롭슨 스트리트

최고의 변화가로 불리는 롭슨 스트리트 일대는 그야말로 없는 게 없는 쇼핑 천국이다. 밴쿠버 쇼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퍼시픽 센터를 비롯하여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유명 브랜드부터 캐주얼 브랜드까지 무려 200여 개의 매장이 이어져 있다. 쇼핑하다가 지칠 때는 다양한 국적의 레스토랑을 찾아 미식 여행을 떠나는 재미도 쏠쏠하다. 겨울에는 이 쇼핑 명소 사이에서 스케이트도 즐길 수 있으니 밴쿠버 도심의 겨울 낭만을 즐기기에 딱 좋다.



## 그라우스마운틴

밴쿠버 시내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위치한 그라우스마운틴은 사계절 내내 레포츠를 즐기기에 제격인 곳이다. 여름에는 하이킹이나 헬리콥터 투어로 녹음이 우거진 산을 감상할 수 있고, 겨울에는 스키와 스노보드를 타며 눈 덮인 경치를 한껏 즐길 수 있다.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에 올라 밴쿠버 시내와 드넓은 태평양을 한눈에 담으면 신비로운 느낌마저 든다. 이 밖에 집라인, 패러글라이딩도 이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색다른 추억을 선사한다.



## 그랜빌아일랜드

밴쿠버의 중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새로운 매력을 품은 섬을 만날 수 있다. 버스로는 20여 분, 미니 페리를 타면 15분 만에 도착하는 그랜빌아일랜드에는 아기자기한 상점과 아트 갤러리, 마켓이 자리하고 있다. 넓고 오래된 공장 지대에서 예술적인 감각이 살아 있는 관광지로 탈바꿈한 이곳에는 이국적이고 독특한 수공예품이 가득하여 잠시도 눈을 뗄 수 없게 만든다. 쇼핑 후 맥주 공장에 들러 그랜빌아일랜드만의 특별한 맥주를 맛본다면 더욱 완벽한 여행이 될 것이다.





### 캐필라노 협곡

밴쿠버 근교에는 숲이 무성하게 우거진 캐필라노 협곡이 자리 잡고 있다. 밴쿠버의 자연을 느껴 볼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특히 아찔한 계곡 위를 건너는 캐필라노 서스펜션 브리지는 이곳의 대표 명소로 손색이 없다. 높이 70m, 길이 140m의 구름다리를 건너는 스릴 넘치는 체험과 더불어 야생 동물원, 원주민 전시관, 생태 관광 가이드 투어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원시림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다.



### 스탠리파크

뉴욕에 센트럴파크가 있다면 밴쿠버에서는 단연 스탠리파크를 꼽을 수 있다. 해안을 따라 형성된 숲을 거닐다가 드넓게 펼쳐진 자전거 도로를 달리며 바다까지 만끽할 수 있어 사계절 내내 관광객은 물론 밴쿠버 시민들도 즐겨 찾는 곳이다. 공원 내에는 대규모 수족관과 미니어처 철도, 밴쿠버 풍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절벽 전망대까지 마련되어 있어 밴쿠버의 자연을 느끼며 관광하기에 안성맞춤이다.

## 영어회화 표현

### 관광과 관련한 영어 표현

Where is the tourist information center?

**관광 안내소가 어디예요?**

I want a guidebook for tourists.

**관광 안내 책자 하나 주세요.**

Do you have a free map?

**무료 지도가 있어요?**

How much is the admission fee?

**입장료는 얼마예요?**

Do you have Korean guides?

**한국어 안내원이 있어요?**

When and where do we meet?

**언제, 어디에서 만나요?**

Does the price include meals?

**식사가 포함된 가격이에요?**

How much is it for each person?

**한 사람당 얼마예요?**

How long does the tour program last?

**이 여행 프로그램은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It will take one hour.

**한 시간 걸립니다.**

You should bring sun block, a hat, and water.

**선크림과 모자, 그리고 물을 준비해 오세요.**

There's a tourist bus every 30 minutes.

**30분마다 관광버스를 운행해요.**

Do I need insurance for this tour?

**이 여행에는 보험이 필요한가요?**

Is there a free restroom around here?

**근처에 무료 화장실이 있나요?**

# 얼어 죽어도 아이스 음료 (얼죽아) & 엄격하고 근엄하고 진지해 (엄근진)

신조어 '얼죽아'와 '엄근진' 알아보기



## 얼죽아



### 용어 해석

‘얼어 죽어도 아이스 음료’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든 줄임말이다. 보통 이 말은 커피 음료에 적용된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추운 날씨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먹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얼죽아라는 말에서 파생된 반대말로 ‘찌죽따(찌 죽어도 따뜻한 음료)’와 ‘뜨죽따(뜨거워 죽어도 따뜻한 음료)’가 있다. 이렇듯 상반된 단어는 자신의 커피 취향을 유머러스하게 표현하는 말로 사용된다.



### 전문가 용어 진단

우리나라는 이미 ‘커피 공화국’이 되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이 2018년 기준으로 353잔이라고 한다. 세계 인구 기준 평균이 132잔인 것과 비교했을 때 약 3배에 달한다. 이를 증명하듯 직장인이 출근길에 커피를 들고 있는 모습은 흔한 풍경이 되었다. 하루에 커피 한두 잔을 마셔야 머리가 맑아지거나 전날의 피로를 풀 수 있다고 말하는, 일명 커피 의존자도 늘어났다. 어느덧 커피는 기호 식품이 아니라 필수 식품이 되어 버린 셈이다.

그리고 커피를 즐겨 마시게 되면서 사람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향과 맛을 추구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마시는 방법도 자신만의 취향을 추구한다. 즉 커피의 쓴맛, 신맛, 탄 맛, 씹쌀한 맛 등을 세분화하여 고르는 것은 물론 시원하게 혹은 따뜻하게 마시는 걸 고집한다. 지난해부터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차가운 커피를 마시는 게 대세로 떠올랐다. 커피 취향이 확고한 사람들이 장난스럽게 모임을 만들면서 SNS 채널에 ‘얼죽아 협회’도 생겨났다.

이제 얼죽아는 단순히 유행어나 신조어에 그치지 않고 한 세대의 취향과 입맛을 상징하는 말이 되었다.



신조어는 그 시대의 젊은 세대가 만들어 낸다. 그렇다면 신조어는 왜 생겨나는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기존에 있는 단어 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회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일 것이다. 전에 없던 현상이 나타날 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대가 바로 2030세대이고, 그들은 기존 세대와는 달리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이를 표현하길 원한다. 이번 호에서 알아볼 단어 역시 젊은 세대 사이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기성세대도 쉽게 유추해 볼 수 있는 표현이니 그 뜻을 알아보고 젊은 세대와의 소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 용어 해석

‘엄격하다’ ‘근엄하다’ ‘진지하다’의 앞 글자를 따온 말이다. 시종일관 점잖고 엄숙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에게 주로 쓰인다. 그런데 처음에는 쓸데없이 엄격하고 진지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에게 사용되었다고 한다. 갑자기 사소한 것에 감정을 몰입하여 분위기를 깨고 진지해지는 행동에 대해 비꼬듯 말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단어 각각이 본래 가진 긍정적인 의미를 살려 카리스마 있거나 점잖은 사람에게 멋지다는 뜻을 담아 쓰기도 한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부정적 의미로도, 긍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다.



## 전문가 용어 진단

가볍게 넘길 만한 상황인데도 괜히 꼬투리를 잡으며 감정을 소모하는 경우가 있다. 다른 방향의 대안이 충분함에도 융통성 없이 원리, 원칙을 주장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젊은 세대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한 가지 방법만 강조하다 보면 ‘왜 혼자 엄근진이야?’라는 소리를 들을지도 모른다. 젊은 세대는 변화에 유연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초연하다. 가벼운 농담은 유쾌하게 받아들이고 넘어간다. 자기주장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다른 의견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수용한다. 그런데 혼자만 무리에서 동떨어져 작은 농담에도 인상을 찌푸리고 반박하기 일쑤라면 엄근진일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진지한 모습을 보이거나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할 일을 올바르게 해냈다면 엄근진이라고 칭찬을 받을 수도 있다. 직업 특성상 혹은 상황상 엄격하고 진지한 모습이 필요한 경우 말이다. 진솔함이 느껴질 정도로 자신이 하는 일에 몰두하거나 잘못된 일에 대해 엄격하게 지적하거나 꾸짖는 것이 그 예다. 긍정의 엄근진이 될 것인지, 부정의 엄근진이 될 것인지는 얼마나 상황을 잘 파악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읽어 화합하느냐에 달려 있다.



# 11월 글로벌 핫클릭 뉴스



## 필리핀, 교도소 내 마약·흥기 숨긴 가건물 발견되어 철거

필리핀이 문턴루파시에 있는 뉴 빌리비드 교도소의 가건물 수십 채를 대대적으로 철거하기 시작하였다. 수용자들이 불법적으로 지어 사용하였던 가건물에서는 마약과 흥기는 물론 전기 프라이팬 등의 가전제품과 성인용품, 현금 뭉치가 무더기로 발견되었다. 교정 당국은 가건물 철거 작업을 위해 굴착기와 불도저를 동원하고, 폭동이 일어날 것을 대비하여 군과 경찰 특공대 1,800여 명, 소방차 등을 투입하였다. 제럴드 반태그 교정국장은 “수용자들이 교도소 직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금지 물품을 반입한 뒤 불법 구조물에 보관해 왔다”라며 “법무부 교정국에서 관리하는 다른 교도소 6곳의 불법 가건물도 모두 철거할 계획이다”라고 말하였다. 또 수용자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는 직원 353명에게 직위 해제 등의 징계를 내렸다고 전하였다.



## 인도네시아, 교도소에 탈출용 구멍 판 프랑스인 마약 사범 적발

인도네시아가 교도소 벽에 탈출용 구멍을 파던 프랑스인 마약 사범을 적발하고 독방으로 이감하였다. 롬복섬에서 수용생활을 하고 있는 프랑스인 펠릭스 도르팽은 2018년 9월 여행 가방에 3kg가량의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을 숨겨서 입국하다가 롬복 국제공항에서 체포되었다. 당시 그는 “누군가에게 가방을 운반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 마약이 들어 있는지는 몰랐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사법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도소에 수용된 도르팽은 올해 초 현지 경찰관을 매수하여 구한 쇠파스로 경찰서 유치장 창살을 잘라 내고 탈옥을 시도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쇠조각으로 벽에 구멍을 파다가 발각되었다. 인도네시아 교정 당국은 프랑스 대사관에 “도르팽을 보안이 더 철저한 누사 캄방안 교도소로 이송하기 전까지 독방에 감금하기로 하였다”고 알렸다.



교정을 유심히 바라보면 이런저런 수많은 사연을 접하게 된다. 그것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의 모든 교정이 마찬가지일 것이다. <교정>지 '글로벌 핫클릭'에서는 세계 교정 관련 이색 소식을 살펴보며, 그 소식이 담고 있는 의미와 우리나라 교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 영국, 교도소서 남몰래 출산한 여성 수용자...신생아 사망

영국의 여성 전용 교도소인 브론즈필드 교도소에 서 수용자가 남몰래 출산하였다가 태어난 아기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교도관이 출산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 신생아는 이미 의식이 없었다고 한다. 구급차와 경찰이 출동했으나 신생아는 결국 사망하였다. 이번 사건을 맡은 서리 경찰은 성명을 통해 “이번 죽음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규명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영국 신문 <가디언>은 어떻게 여성 수용자가 감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학 지원 없이 출산할 수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또한 브론즈필드 교도소에는 수용자가 출산하거나 신생아를 낳은 후 입소할 경우 아이가 생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함께 지낼 수 있는 별도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고 전하였다.



### 태국, 불상 조각 훈련 프로그램 수용자 교화 효과 입증

태국 교정 당국은 방광 교도소에서 운영하는 불상 조각 훈련 프로그램이 수용자 교화에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방광 교도소 수용자들은 전문 조각가와 자원봉사자들에게 점토로 불상을 만드는 훈련을 받는다. 이 프로그램은 5년 동안 운영되어 왔으며 올해는 36명의 수용자가 훈련을 받았다.

교정 당국은 조각상을 만드는 과정이 수용자의 심성을 순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수용자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집중력을 기르고 목적의식을 가지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불상 조각 훈련을 받은 한 수용자는 “불상을 만들며 마음을 정화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계속 조각을 할 계획이다”라고 말하였다.



# 유도하는 교도관의 따뜻한 마음에 지역사회를 초대합니다

제5회 부산구치소 어린이 유도 대회







“40년을 참았다!”

몇 년 전 부산구치소 근처에 현수막 하나가 걸렸다. 30년 전부터 부산구치소 이전을 주장해 온 지역주민들의 목소리였다. 부산구치소 주변이 어두워 위험한 것은 물론 교정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지역 발전이 저해되었다는 게 그 이유다.

부산구치소 직원들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더 열심히 교정을 홍보해야겠다고 다짐한다. 그중에서도 유도 동호회 직원들의 의지는 남다르다. 지역에 친근한 교정기관이 되기 위해, 교정시설과 교도관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애쓰는 교정공무원들. 10월 19일, 제74주년 교정의 날을 맞아 어린이 유도 대회를 개최하며 또 한번 교정 홍보 활동에 나섰다.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자.

### 부산 사상구 주례동 옆집은 구치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에는 낙동강으로 흐르는 지방 하천인 확장천이 있다. 낙동강 쪽에서부터 확장천을 따라 걷다 보면 천을 따라 키가 낮은 주택이 죽 늘어서 있는데 그러다 물길이 주례동에 닿는 순간 딱, 주택 길이 끝난다. 고개를 들어 살펴보니 ‘ㄷ’자 모양의 문, 산 밑으로 언뜻 보이는 높은 벽이 눈에 들어온다. 도로에서 아무리 시설 안쪽을 보려 해도 절대 내부가 보이지 않는 곳. 바로 부산구치소다. 주택가와 맞닿아 있음에도 실체를 잘 확인할 수가 없어서 일부 주민은 구치소의 존재를 조금 불편하게 여기기도 한다. 부산구치소 직원들은 주민들이 우려하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구치소를 혐오 시설이 아닌, 형사사법 절차에서 꼭 필요한 공공기관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록 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부산구치소 직원들은 명절이면 사회복지시설에 위문금을 전달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유도를 가르치기도 한다. 특히, 부산 지역 내 청소년들에게 유도를 가르치고 연무관(실내 체육관)을 개방하여 필요할 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10월 19일에 개최한 어린이 유도 대회도 시민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행사 중 하나였다. 부산구치소 직원들은 제74주년 교정의 날을 기념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

### 유도 대회로 한층 가까워진 부산구치소와 지역주민들

2019년 10월 28일은 제74주년 교정의 날이다. 이를 기념하여 부산구치소는 ‘제5회 어린이 유도 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지역주민을 초대하여 유도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교정행정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다. 이 유도 대회는 올해로 벌써 다섯 번째 개최되었다. 어린이들이 참가할 만한 유도 대회가 거의 없는데, 부산구치소에서 매년 이런 대회를 여는 덕에 많은 어린이가 좋은 추억을 쌓게 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부산구치소 연무관에서 유도 교육을 받는 어린이 31명과 부산시 대연동에서 13명, 부산시 초량동에서 9명, 그리고 김해와 창원에서도 약 30명의 어린이가 참가하였다. 총 83명의 선수들은 5세부터 13세까지 유치부와 초등부로 구성되었다.

연무관 내부는 아이들의 깔깔대는 소리로 가득 찼다. 한참을 뛰며 소리 지르다 박성대 교위의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는 부드러운 목소리에 토끼 눈을 하고선 앞을 쳐다본





다. 오후 1시, 유도 대회가 시작될 시간이다. 간단한 개회사를 시작으로 대회 취지와 시설 이용에 관한 안내를 전달하곤 지체 없이 첫 경기가 시작되었다.

첫 경기에는 5세 어린이들이 출전하였다. 맞붙은 두 아이는 승리에 대한 살벌한 의욕보다는 아장아장 수줍은 발걸음으로 매트로 걸어 나왔다. 살포시 다리를 걸어 보고 뱅글뱅글 돌기도 하다가 의도한 것인지 우연인지 모를 발다리 기술을 선보였다. 매트에 넘어지는 것도 ‘쿵~’ 하고 슬며시 넘어가던 아이들. 연신 싱글대는 아이들의 모습에 관중은 환호를 보냈다. “너무 귀엽잖아!” “그래도 발다리 후리기를 하네.” 매트에 엎어져서 생글생글 관중을 바라보는 두 아이에게 누군가 외쳤다. “굳히기 해야지, 굳히기!” 그러자 두 아이가 까르르 웃으며 굳히기에 들어갔다. 박성대 교위가 “잘했어, 잘했어”라며 경기에서 승리한 아이의 볼을 양손으로 살며시 두드리 주었다.

초등학교 고학년들의 경기는 살벌하였다. 초등학교생들의 경기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힘이 넘쳤고, 화려한 유도 기술이 펼쳐졌다. 경기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 연무관에 있는 그 누구도 이곳이 ‘구치소’임을 신경 쓰지 않았다. 여기는 그저 유도 대회장이었고, 제복을 입은 교정공무원들은 유도 선생님이자 심판일 뿐이었다.

대회장 밖에서는 시합을 마친 어린이 몇몇이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다. 멀리 보이는 높은 담장이나 그 안에 살고 있을 사람들에 관해서가 아니라 저녁에 뭘 먹을지, 교도관 제복이 얼마나 멋있는지에 관해서 말이다.

#### 유도 교실과 유도 대회, 교도관을 새롭게 보게 되는 계기

1973년 부산구치소가 주례동에 자리 잡으면서 유도를 할 수

있는 연무관을 개관하였다. 2014년부터는 일반인에게도 개방하였고, 부산구치소 내 직원 50여 명으로 구성된 유도 동호회가 주축이 되어 지역주민 유도 교실도 열고 있다. 전문적으로 유도를 지도한다기보다는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유도 놀이’를 지향한다. 하지만 동호회원 중에는 유도 생활체육 지도자나 심판 자격증이 있는 직원이 있어 전문적인 지도가 이루어진다는 의견도 많다.

“우리 아이가 지금 체육관에서 유도를 배우는데요. 구치소에 와서 배우는 게 훨씬 재미있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전문적으로 알려 주시고, 정말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해 주신다고요. 교도관이니까 무섭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기우였어요.” 연무관 유도 교실에 아이와 함께 참가하는 오성에 씨는 앞으로 계속 유도 교실과 대회가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부산구치소 어린이 유도 교실은 2015년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에 진행되고 있다.

“유도 대회를 열면 아이뿐 아니라 학부모님도 오시잖아요. 우리 구치소가 어린이들도 놀 수 있는 곳이라는 걸 직접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 교도관에 대한 고정관념을 극복했다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박성대 교위는 다시 쓴살같이 대회장 앞쪽으로 뛰어간다. 방금 시합에서 패배한 아이를 달래 주고, 심판 자리에 다시 섰다. 시끌시끌한 대회장에서 온종일 웃으며 대회의 중심을 잡는 그를 보니, 마치 교정공무원의 일이 이와 같다고 생각된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늘 든든하게 서 있으면서도 따뜻한 미소와 친절함을 잃지 않는 일. 경기의 중심을 지키며 승자와 패자를 함께 독려하는 심판의 일. 부산구치소 유도 교실과 유도 대회를 통해 많은 사람이 교정공무원의 따뜻한 마음을 알게 되길 바란다.





## 어린이 유도 대회에 함께한 교정공무원과 일반 시민 MINI INTERVIEW



### 보안과 교위 심명섭

유도 교실을 할 땐 늘 도복을 입는데 하루는 정복을 입고 갔죠. 그랬더니 아이 하나가 “이거 뭐예요?” 하더라고요. 웃이 멋있다고, 자기도 나중에 교도관이 되겠다고 말하는데 울컥했어요. 그날 업무가 많아서 조금 피곤했는데, 눈을 말뚱말뚱하게 뜬 아이가 저를 존경한다고 하니..., 마음이 벅찼어요. 저희 유도 교실, 유도 대회 정말 즐겁게 하고 있으니까요. 지역 주민분들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희와 함께 운동도 하고, 좋은 시간 보내요!



### 의료과 교위 박성대

유도 교실의 첫 학생은 제 두 딸이었어요. 토요일마다 딸들을 데려와 유도를 하면서 놀고, 운동도 했지요. 처음에는 구치소를 낯설어 하던 분들도, “우리 애도 여기서 배웁니다” 하니까 믿고 보내시더라고요. 이제는 학부모님들이 매 수업마다 간식과 음료를 챙겨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구치소는 교정 홍보 활동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소장님도 많이 도와주시고요. 이런 활동이 좀 더 확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저희 시설을 조금 너그럽게 바라봐 주실 때까지 저희가 더 노력해야죠.



### 이윤서(부산 신금초등학교 6학년)

체육관에서만 유도를 하다가 여기 와서 배우니까 훨씬 재밌어요. 처음에는 구치소에 와서 배운다는 게 조금 무서웠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박성대 사범님이 늘 웃어 주시고, 친절하게 대해 주셔서 좋아요. 유도도 잘 가르쳐 주시고요. 박성대 사범님과 계속 유도를 하고 싶어요.



### 박지현(부산 가평초등학교 2학년)

토요일마다 유도 교실에 와요. 가끔씩 빠질 때도 있어요. 그래도 한 달에 세 번은 와요. 처음에는 한 번밖에 안 왔는데 재밌어서 점점 많이 오게 되었어요. 박성대 사범님이 심판도 해 주고, 유도 기술도 가르쳐 주셔서 좋아요. 사범님들께 감사하다고 전해 주세요.



### 오성애(이윤서 군 어머니)

우리 아이는 유도 선수 생활을 하고 있어요. 원래 일반 유도 체육관을 다녔는데, 작년쯤에 유도를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과연 이 길을 계속 가도 될까 고민도 하고요. 그때 알게 된 곳이 부산구치소 유도 교실이었어요. 구치소니까 운동도 엄청 힘들게 시키는 건 아닌가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아이들을 정말 따뜻하게 대해 주시더라고요. 부산구치소 연무관에 오가면서 결국 우리 윤서가 유도를 다시 좋아하게 되었어요. 사범님들이 윤서를 잘 다독여 주고 이끌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봄바람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부산구치소 유도 동호회 사범님들 모두 고맙습니다.



### 성시현(부산 엄궁초등학교 1학년)

매주 유도 교실에 와요. 처음에는 염마가 시켜서 오게 된 거라 조금 오기 싫었어요. 그런데 다녀 보니 너무 재밌어요. 사범님들 모두 다 고마워요. 열심히 가르쳐 주시고 정말로 친절해요.



# 제74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 정부포상 및 교정본부 웹툰 공모전 수상자 시상 교정작품전시회 개최

교정공무원들이 깔끔하게 다림질한 정복을 차려입고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으로 들어선다. 10월 28일 교정의 날. 오늘 행사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이들은 평소보다 더 당당한 눈빛이다. 자신의 교정공무원 인생을 돌아보는 한편, 그동안의 공적을 인정받은 선배에게는 진심 어린 축하를 보낸다. 한 아름 꽃다발보다 더 빛나고 값진 인생을 산 이들을 위해 웅장한 선율의 색소폰 연주와 록 밴드의 흥겨운 노래가 울려 퍼진다.





광복 직후인 1945년 10월 28일,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교정행정 업무 전반을 인수하면서 대한민국 교정행정의 주인이 되고 교정 역사의 주체가 됨을 선언하였다. 즉 10월 28일은 대한민국 자주 교정의 싹을 틔운 날이다. 우리나라는 1946년 10월 28일을 제1주년 교정의 날로 지정했으며, 2002년에는 국가 기념일로 제정하여 대한민국 교정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더 나은 길을 모색하도록 하였다. 제74주년 교정의 날을 맞은 올해, 그동안 우리나라 교정이 과밀수용 해소와 수용자 교정교화, 수용자 인권 보호를 위해 해 온 노력을 곱씹어 본다.

### 교정 자주권 회복의 의미 되새기다

올해는 교정의 날이 74주년을 맞은 해이다. 교정본부는 광복 직후부터 현재까지 교정의 의미를 되새기고 교정공무원들의 헌신을 격려하고자 10월 28일 정부과천청사 지하 대강당에서 제74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최강주 교정본부장과 허부경 교정위원중앙협의회회장, 승성신 대한민국제향교정동우회장, 그리고 교정공무원, 교정참여인사 등 800여 명이 참석하였다. 행사는 식전 행사를 시작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영상 격려 메시지 상영, 정부포상 수여식, 무빙 샌드아트 축하 공연 및 김천소년교도소 소년수형자 특별 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순천교도소 음악 동호회 ‘오비이락’ 팀 등이 식전 행사를 맡아 에너지 넘치는 공연을 선보였다. 행사에 참석한 교정공무원과 교정참여인사들은 교정의 날을 맞은 주인공답게 음악 동호회의 노래에 맞춰 박수를 보내고 환호하였다. 이어 상영된 영상에는 교정공무원과 교정참여인사를 격려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교정공무원과 교정참여인사들은 공정한 법 집행과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오랜 시간 헌신해 왔습니다. 교정공무원의

노력은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 사회를 더욱 안전하고 행복하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할 때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정부는 과밀수용 해소와 수용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 교정 발전에 헌신한 37명에게 표창 수여

대한민국 교정은 74주년이라는 오랜 기간만큼이나 많은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왔다. 현재 대한민국 교정의 이념은 단순한 격리와 구금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정으로 발전하였다. 교정의 성장을 뒷받침했던 것은 1만 6,000여 명의 교정공무원과 4,000여 명의 교정참여인사들이다. 오늘날 교정행정은 수많은 교정공무원과 교정참여인사들의 땀방울이 만들어 낸 결과인 셈이다. 교정의 날 기념식에서 이들의 노력과 수고를 치하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영상 격려 메시지가 끝나자마자 총 37명의 정부포상 수여자에 대한 시상이 진행되었다. 국민훈장 동백장은 대전교도소 김향선 교정위원이, 홍조근정훈장은 법무연수원 이경식 교정연수부장이 수상하였다. 이어 인천구치소 연광 교정위원 외 2명이 국민포장을, 이영희 수원구치소







장 외 1명이 근정포장을 받았다. 대통령표창과 국무총리표창은 각 14명, 15명의 교정공무원 및 교정위원에게 돌아갔다. 안양교도소 김준채 교감은 장관표창을 대표 수상하였다.

시상식을 통해 이들의 공적이 널리 알려진 건 물론이다. 대전교도소 김향선 교정위원은 출소자가 참여하는 봉사 단체인 '딴새라 교정선교회'를 창설하고 전국 교정기관을 순회하며 교정교화 활동을 해 왔다. 이 외에도 영치금을 지원하여 불우·고령 수용자나 장기 수형자들이 안정적으로 수용생활을 할 수 있게 기여한 바 있다. 법무연수원 이정식 교정연수부장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통과시키는 등 교정 관계 법령의 개선과 발전에 기여하였다. 참석자들은 선배 혹은 동료, 가족의 수상을 축하하고 그간의 공적과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다.

### 국민과 함께하는 교정의 날

교정의 날에는 교정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초대되고 있다. 교정본부는 지난 8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약 한 달 동안 '제74주년 교정의 날 기념 교정본부 보라미·보드미와 함께하는 웹툰 공모전'을 진행하였다. 공모전을 통해 국민들이 교정행정을 이해하도록 이끌기 위해서였다. 제74주년 교정의 날에 공모전 시상식도 함께 개최함으로써 국민과 소통하였다.

가족의 수상을 축하하러 온 국민들은 대한민국 교정행정의 역사와 오늘을 보여 주는 '무빙 샌드아트' 공연을 감상하며 교정공무원들의 노력과 우리나라 교정행정의 발전상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또한 30~40년간 수용자들의 곁을 지켜 온 교정공무원의 인터뷰 영상을 통해 교정공무원의 자긍심을 엿보았다.

김천소년교도소 소년수형자가 꾸민 뮤지컬 공연과 과천시 민회관 전시실에서 열린 부대행사 '교정작품전시회'를 통해서도 수용자의 갱생 의지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교정작품전시회에는 수용자들이 교도작업을 통해 만든 도자기와 장식장, 침대부터 반지와 펜던트까지 다채로운 교정작품이 전시되었다. 금속이나 한지, 향나무, 점토 등 사용된 재료도 제품만큼이나 다양하다. 교정작품전시회 행사준비팀인 여주교도소 윤현철 교위는 전시회에 찾아온 시민들이 교정작품에 다들 만족해하고 수용자에 대한 편견을 조금이나마 해소한 것 같다고 설명하였다.

“개관한 지 1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판매 완료된 작품이 속속 나옵니다. 전시 작품 가운데 한지 공예나 도자기, 생활품 등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은 더욱 인기 있어요.”

윤현철 교위의 말을 증명하듯 시민들은 전시 작품을 하나하나 만져 보며 감탄을 내질렀다. 과천 시민인 대학생 고동준



씨는 최근 미디어를 통해 수용자들이 교도작업을 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며 감사 소감을 전하였다.

“마침 과천에 교정작품전시회가 열린다기에 호기심이 생겨 찾아왔어요. 작품을 만드는 수용자들은 ‘금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금손 작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에요. 한지로 만든 팔각함이 욕심났는데, 30분 늦게 왔더니 전부 판매 완료되어 아쉬워요.”

과천시민회관 건물 바깥에서 열린 기관별 부대 행사도 국민들을 끌어당겼다. 국민들은 간식 시식 행사와 교도관 정보 체험, 스트레스 검사 등에 참여하며 새로운 경험에 한껏 즐거운 표정을 지었다.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받고 친근하게 다가가는 교정행정은 전국 곳곳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 교정의 날 기념식과 부대 행사는 교정공무원들과 교정참여인사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자리였다. 국민들은 오랜 시간 교정을 위해 몸 바쳐 온 교정공무원을 새롭게 바라보고, 교정공무원들은 교정 발전의 책임과 의무를 다시금 되새겼다. 교정의 날은 교정본부가 ‘더 나은 내일, 희망의 교정’을 만들어 갈 것임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74년 전부터 오늘날까지, 교정행정의 발자취 속에는 언제나 국민을 위한 희생과 봉사 정신이 가득 하였음을 알 수 있는 기회였다.

## Q 교정작품전시회, 어떻게 구성하였나요?

**A 서지윤 큐레이터** : 교정작품전시회를 개관하기까지 한 달 정도 준비하였습니다. 입구에 전국기능경기대회 대상 수상작인 ‘한복장식장’을 배치하여 눈길을 사로잡았고, 중간 중간 전통 작품과 가을 분위기에 어울리는 소품도 놓았습니다. 현대 작품 공간은 나른한 지중해 바다 분위기가 나도록 꾸며 보았어요. 행사준비팀의 교도관분들과 함께 작품 옆에 놓을 커튼을 고르고 한 땀, 한 땀 구슬을 꿰어 물방울을 표현해 보기도 하였어요.

천장에 있는 종이학은 교정행정을 상징합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흰 종이처럼 똑같이 태어나 시작하지만 어려운 고비를 겪잖아요. 구겨진 종이를 버리지 않고, 다시 펴서 학으로 완성하는 게 중요하죠. 수용자를 재사회화하고 교정교화하는 교정행정이 바로 구겨진 종이를 펴 학을 완성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섬세한 손길, 우수한 필선으로 완성한 작품들이 다양하게 전시되어 있으니 많은 분들이 교정행정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교정본부 캐릭터 활용 웹툰 공모전 수상자

### MINI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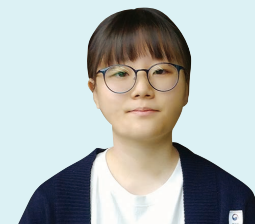
최우수상(일반부) 하유나

교정이라고 하면 <슬기로운 감빵생활>이라는 드라마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드라마를 통해 교정시설의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으니까요. 이번 웹툰 공모전에 참여하면서 교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공부하다 보니 그동안 색안경을 끼고 교정시설을 바라보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처럼 다른 분들도 교정시설에 대한 편견을 없앴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는 교도관님들의 행사에 참석하게 되어 너무나 영광입니다.



우수상(일반부) 이승환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교정시설에 편견을 갖지 않고 있는 어린이를 주인공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주인공은 보라미, 보드미와 교정행정을 체험하면서 교정시설이 가깝고 편하다고 느낍니다. 저도 교정의 날 기념식에 초대되어 와 보니 교정시설이 정말로 친근한 공공기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랜 세월 근무하며 힘든 일도 많으셨을 텐데 교도관분들이 서로 웃으며 인사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교도관님들의 축제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수상(청소년부) 박성하

가상의 인물 ‘보람이’와 엄마, 보라미, 보드미가 함께 교정시설을 돌아다니며 오해를 푸는 내용으로 웹툰을 그렸어요. 새로 만든 교정본부 캐릭터가 예전 캐릭터보다 친근하고 귀엽게 느껴져서 웹툰 작업도 즐겁게 했답니다. 생각지도 않게 큰 상을 받게 되어 얼떨떨하네요. 울산에서 상을 받으러 오는 내내 긴장했는데도 설레고 떨리는 마음은 아직도 남아 있어요. 진로가 웹툰 분야인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제 진로와 꿈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어요.

## “요즘 직장에서는 이런 것도 해 줘” -가족에게 자랑하고 싶은 직장-

“요즘은 직장에서 이런 것도 해 줘?”

한 직장 동료가 얼마 전 아내에게 들었다는 얘기가. 직장에서도 이런 프로그램도 해 주느냐고 신기해하며 묻는데, 새삼 ‘그러네, 직장에서도 이런 프로그램도 해 주는 시대가 왔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가족에게 이런 얘기를 들은 직장 동료는 천안개방교도소의 ‘가족 영상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했었다. 그간 찍어 두었던 가족들 사진을 모아 영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었다. 관심 있는 직원 6~7명이 모여서 강사에게 교육을 듣고 눈과 손을 분주히 움직이며 실습을 하였다. 특별한 기술 없이도 누구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참여한 직원의 연령대도 다양하였다.

동료는 퇴근 후 결과물을 가족에게 보여 주어야 하나 망설였다. 자기가 만들었지만 첫 작품이다 보니 부족한 점이 눈에 많이 띄었기 때문이다. 말을 할까 말까 망설이다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하며 “우리 가족사진을 모아서 영상으로 만들어 봤는데…”라고 넉넉히 운을 떼었다. 가족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당신이 만들었다고?” “아빠가요?”라며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런 반응에 더 머쓱해졌지만 휴대폰은 이미 가족들 손에 들려 있었다. 영상을 확인하던 아내는 “이거 어떻게 만든 거야?”라며 여전히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하였다. 직장에서 ‘가족 영상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해 만들었다고 하자 “요즘 회사에선 그런 것도 해 줘?”라며 신기해하였다. 이러한 물음에는 ‘요즘 회사 많이 좋아졌네’ ‘회사에서 많은 것을 신경 써 주네’라는 긍정적 메시지가 담겨 있는 듯하였다. 서투른 실력으로 만들었지만 아이들과 아내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가족이 모여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한다.

또 다른 동료는 가족 간의 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고민을 해 왔다. 진지하게 털어놓지는 못했지만 지나가는 말로 “상당



사가 가족 대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나?”라는 말을 해 왔다.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하던 나는 가장 보편적으로 가족 간의 성격을 알아볼 수 있는 ‘MBTI(성격유형검사)’를 권하였다. 마침 얼마 전 심리치료팀이 복지과로부터 예산을 받아 MBTI 도구를 구매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교도소 안에서 가족과 함께 대화를 나누기엔 다소 어색한 측면이 있어 외부 식당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고, 식사 후 MBTI 검사를 실시하였다. 부부와 자녀가 함께 검사를 받았다. 재미있게도 남편과 아내는 반대 유형을 가지고 있었다. 자녀는 아직 나이가 어려 성격을 형성해 가는 시기였다. 분명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따라 자녀의 성격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터였다.

해석을 시작하며 첫마디를 “서로 반대 유형이시네요”라고 하자 부부에게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리고 이내 각각 “그럼 그렇지” “어쩐지…”라는 혼잣말을 하였다. “연애할 때는 자신에게 없는 부분을 가진 상대가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라고 하자 부부는 말없이 미소를 지었다. 반대 유형이라 부딪치는 부분이 많겠지만 서로에게 없는 부분을 발견하고 채워 줄 수 있어 강점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 뒤 여러 예를 들며 해석을 하자 서로에게 섭섭했던 부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좋았던 부분 등을 털어놓았다.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앞으로 가족 간 소통이 개선될 가능성이 보였다. 프로그램이 끝난 뒤 감사하다는 얘기에 나 역시 이런 기회를 주어 감사하다고 답하였다.

직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는 다른 즐거움을 느낀다. 프로그램의 진행 목적이 다르고, 연결할 수 있는 외부 자원이 더욱 풍부하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에 있는 외부 자원을 하나씩 발굴하여 직원에게 연결하고 나아가 가족에게까지 긍정적인 효과가 미치는 일은 교도소 업무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블루오션처럼 느껴졌다. 직원과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은 수용자의 교정교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 소에서 직원 정신 건강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가장 초점을 둔 건 ‘가족’이었다. 직장인이 겪고 있는 고민과 스트레스가 단편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 방법도 쉽지 않다. 결국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보다도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물론 개인적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에게는 개인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렇더라도 개인이 겪고 있는 문제는 대부분 혼자만의 문제라기보다는 가족과 연결되어 있으며, 개인의 문제라고 해도 가족이 함께 개입했을 경우 큰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금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에게 가족의 관심과 따뜻한 말 한마디는 우울과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튼튼한 밭줄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교정본부 심리치료과에서 추진하는 ‘직원 정신 건강 프로그램’은 교도소 직원들에게 큰 힘을 주고 있다. 현재 교정본부의 직원 정신 건강 프로그램 중 ‘마음나래 프로그램’은 직원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행 초기에는 상담에 대한 거부감, 비밀 보장에 대한 염려 등으로 참여율이 낮았지만 효과를 보

았다는 직원들의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직원이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 확대되는 예산에 따라 더 많은 직원과 가족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

직원 정신 건강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서 중요한 또 다른 부분은 ‘문화’다.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 개인에게 개입하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직원 전체가 누릴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문화가 있는 직장’은 교도소라는 폐쇄적이고 삭막한 분위기를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위에서 소개한 프로그램 중 ‘가족 영상 만들기’ 프로그램은 ‘문화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직원들이 함께 문화 공연을 보러 가는 프로그램, 점심시간 같은 휴게 시간을 이용하여 즐길 수 있는 문화 찾집 프로그램 등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무궁무진하다.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는 각 교도소의 심리치료팀이 앞장서고 있다.

직원들은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진행자 입장이던 것에서 조금씩 참여자, 수혜자의 입장이 되어 보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할 땐 이런 느낌이구나’부터 ‘이런 프로그램을 해 볼 수 있는 직장에 다니고 있어 즐겁다’라는 생각까지 모두 직원 정신 건강 프로그램이 주는 선물이다. ‘요즘 직장에선 이런 것도 해 줘?’라는 가족의 시샘 섞인 반응에 ‘나 이런 직장 다닌다’라고 우쭐해 보이는 건 ‘땀’이다.

## 부모님, 이제야 안아 드리는 저를 부디 용서해 주세요

“손님 여러분, 편안한 여행 되셨습니까? 지금 이 비행기는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고 있습니다.”

기장의 안내 방송을 듣고 작은 창을 통해 바라본 한국의 모습은, 새벽의 어스름이 채 가시지 않은 고요한 아침이었습니다. 짐을 챙기고 맨 앞에 서서 내리기를 서둘렀지만 출입문은 좀처럼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저는 승무원에게 문이 왜 열리지 않는지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에 승무원은 뜻밖의 대답을 하였습니다. 비행기 안에 범죄자가 탑승하고 있어 먼저 그 사람을 인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라서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탑승구 문이 열렸고, 앞에 서 있던 두 남자가 들고 있던 사인을 확인한 후 제게 손짓하며 먼저 내릴 것을 알렸습니다. 그 무서운(?) 범죄자가 저일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2017년 2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미국 회사를 한국 법에 맞지 않게 론칭한 잘못으로 수인의 몸이 된 지 어느덧 2년 반이 되어 갑니다.

그 시간 동안 제 가족들과 지인들이 저로 인해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당사자인 저보다 더 고통의 세월을 감내한 분들이 바로 제 부모님입니다. 제겐 ‘미움’이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기억되는 분들입니다.

어릴 적,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저는 두 분에게 기쁘고 자랑이었습니다. 제 말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주고, 사랑을 듬뿍 주시는 부모님 품에서 아쉬울 것 없이 행복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두 분은 제가 열두 살이 되던 해에 갑작스레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빠는 재혼한 엄마를 따라가고, 저는 아버지와 살게 되었습니다. 홀로 남은 아버지를 더 기쁘게 해 드리기 위해 어린 저는 더욱 노력하였고, 우수한 성적과 학급 임원을 놓치지 않으며 악착같이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된 해에 아버지는 제가 언니라 부르며 따르던 회사 직원과 재혼하였습니다. 그 후 마치 동화의 즐거기처럼 하루아침에 저는 아기를 가진 계모와 아빠 사이에서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어 버렸습니다. 성적은 끝없이 떨어졌고, 대학 입시에 낙방한 이유를 아빠의 재혼 탓으로 돌렸습니다. 아빠





‘교정 희망의 백일장 II’는 수용자들의 수필로 엮어 나가고 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자책의 글이나 출소 후 희망적인 삶을 살겠다는 다짐의 글로 채워지기도 합니다.  
 순간의 실수로 범죄의 길에 들어선 수용자들이 참회하고 교화되어  
 출소 후 몇몇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가 저를 기숙 입시 학원으로 보내겠다는 매물찬 말을 하신  
 그날 밤, 집을 나와 홀로서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듬해 봄, 저는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였습니다. 4년 후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이민 가 있는 엄마를 따라 미  
 려 없이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 당시 한국은 제게 아픔과  
 상처로만 남아 있었기에 미국에 간 후 20여 년이 넘도록 한  
 국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근무하고 있던 미국 회사가 해외 진출을  
 위해 한국에 오픈하게 되면서 저는 회사의 지시로 한국에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해외 진출을 하  
 게 되었습니다. 실력을 인정받은 저는 곧이어 다른 회사의  
 제안을 받았고, 그 회사의 한국 론칭을 이끄는 역할을 맡았  
 습니다. 성공과 명예, 부가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한꺼번에 몰려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대로 만족할  
 수 없어 ‘조금만 더’를 외쳤습니다. 건강까지 잃어 가며 일  
 에 몰두하였습니다.

그렇게 아픈 몸을 이끌고 일을 하다가 체포된 것이었습니  
 다. 한국 땅을 밟기도 전, 비행기에서 말입니다. 알고 보니  
 오픈했던 회사의 불법적인 한국 내 투자 방식으로 몇몇 분  
 이 구속되면서 제 이름이 거론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몰  
 랐습니다. 경찰 조사, 검찰 조사, 1심, 2심, 상고까지의 재  
 판 과정을 거치며 1년 반이 흘러갔고, 지금까지 총 2년 반  
 이 지나고 있는데 이 시기가 제 인생에서 꼭 있어야 할 귀중  
 한 시간이 될 것이라는 것을요.

그동안 저는 사랑하는 속마음과 달리 부모님께 분노를 표하  
 고 비수같이 날카로운 말을 내뱉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  
 쳐 응어리진 마음 때문이었죠.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구속  
 되었다는 소식에 미국에 있는 엄마는 쓰러져 곡기를 끊고,  
 차가운 바닥에서 저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지난 5월에는  
 제 얼굴을 보기 위해 아픈 몸으로 30여 년 만에 한국에 오  
 셧습니다. 엄마는 난생처음 딸이 관복을 입고 수건을 단 모

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지만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으셨습니  
 다. 하지만 접견 시간이 끝나고도 한참 동안 접견실 문고리  
 를 부여잡고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셨습니다. 또 한국에 있  
 는 아버지는 매일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이 먼 곳까지 와 주  
 십니다. 제게 매주 길고 긴 서신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  
 며, 바뻐던 딸의 얼굴을 이렇게나마 실컷 보게 되어 감사하  
 다고 하십니다. 얼마 전에는 수용 거실 내 동료를 잘못 도  
 운 일로 처음 ‘조사수용’이란 것을 겪었는데 아버지는 간신  
 히 예정된 수술 날짜를 연기하고 찾아와 무서워하는 저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는 제 말을 전해  
 듣고는 또 이렇게 서신을 보내 주셨습니다. 이 서신을 부여  
 잡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어쩌면 아빠는 너를 만나 안아 보고, 웃어 보고 하는 일상  
 의 행동이 나의 마지막 바람이고 소원의 끝인지도 모르겠  
 다. 보고 싶다! 우리 딸! 안아 보고 싶고 같이 엉엉 울고 싶  
 을 정도로 네 생각을 하고 있으니 아빠 생각해서 남은 시간  
 깔린 낙엽도 조심해서 피해 걷도록 해라. 사랑한다, 내 딸!  
 안녕!”

그동안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부모님 두 분의 깊고 큰 사  
 랑과 기도 속에 이렇게 성장하고 어른이 되어 살아온 것을  
 요. 두 분을 원망하고 탓하며 제가 잘나서 저 혼자 스스로  
 이루어 왔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의 정성과 사랑으로 중년이 된 지금까지도 자라나고  
 성장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못난 딸이 부모님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  
 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동안 불효했던 저를, 지금도 두 분  
 께 걱정을 끼치는 저를 부디 용서해 주세요. 제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마치는 그날, 담 밖에서 저를 기다리겠다고 말  
 한 두 분을 부둥켜안고 이렇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엄마, 아빠, 이제야 제가 두 분을 안아 드려요. 용서하세  
 요. 사랑합니다.”

# 가석방제도의 운영 현황과 발전 방향(上)\*

## - 회복적 사법을 중심으로 -

### 목차

- I. 서론
- II. 최근 일본의 가석방제도 논의 상황
- III. 우리나라 가석방제도 운영 현황과 문제점
- IV. 현행 가석방제도 운영의 효율화 방안
- V. 회복적 사법을 통한 가석방제도 발전 방향
- VI. 결론



### ◆ 국문 요약

형벌에서 자유형의 목적이 수형자의 교화·개선을 통한 사회 복귀(rehabilitation)에 있는 이상 이미 개선(改悛)하여 사회적 위험성이 없는 자를 계속 구금한다는 것은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라는 교정의 목적에도 합치하지 않으며, 수형시설의 과밀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는 등 교정행정의 여러 현실적인 문제도 발생시킬 수 있다. 가석방제도는 불필요한 형집행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수형자의 사회 복귀를 앞당기는 동시에 형집행에서 수형자의 자발적인 사회 복귀 동기를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 이런 점을 볼 때 가석방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교정을 넘어 범죄 예방이라는 형사정책의 이념을 달성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제도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특히 1990년대 이후 가석방에 관련된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형사정책적으로 가석방제도가 갖고 있는 다양한 긍정적 기능을 인정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가석방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가석방제도 활성화에 대한 학계 및 실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가석방 비율은 미국, 일본의 절반 수준인 30% 이하에 머물고 있다. 가석방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여러 이유가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범죄자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감정'이다.

최근 가석방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 교정 분야에 회복적 사법을 적용하여 범죄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견해가 새롭게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대립 관계인 응보적 사법과 달리 가해자·피해자가 형사 절차의 마지막 교정 단계에서 만남의 자리를 통해 사죄·용서·화합한다. 이로써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범죄자의 진정한 뉘우침을 통한 재사회화, 나아가 범죄로 인해 발생한 우리 사회의 갈등을 회복하고 '화해'를 통한 진정한 의미의 교정 이념(목표)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회복적 사법 개념의 도입은 가석방을 포함한 교정 단계에서 수형자 재사회화를 위해 이루어지는 모든 처우에 대해 일반 국민들의 이해와 긍정적 지지를 이끌어냄으로써 수형자 처우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 본다. 즉 교정에서 회복적 사법의 도입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라는 측면과 실질적으로 수형자에 대한 사회 복귀 처우 강화라는 양면을 모두 충족시키면서, 범죄로 인한 우리 사회의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본다.

주제어 : 교정, 가석방, 범죄 예방, 사회 복귀, 회복적 사법

\* 이 논문은 2019-2020년도 창원대학교 자율연구과제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 결과임(2019년 6월 14일 제56회 한국교정학회 춘계 공동학술대회 발표 내용과 교정연구 통권 제84호에 실린 논문을 수정·보완하였음).

\*\*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법학박사

▶ 접수일(2019. 8. 21.) 심사일(2019. 9. 18.) 수정일(2019. 9. 23.) 게재확정일(2019. 9. 26.)

## I. 서론

### 1. 가석방제도의 의의

가석방(Parole)이란 징역 또는 금고의 자유형 집행 중에 있는 자가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개선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 형기 만료 전에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수형자를 석방하고, 그 형기 만료 시까지 또는 법이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조건을 위반하지 않으며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무사히 보내면 형의 집행이 종료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sup>1)</sup> 특히 우리 「형법」은 2010년 개정을 통해 유기징역을 최대 50년까지 가능하게 입법하고, 가석방이 가능한 형기이수기간을 무기형은 10년에서 20년으로 2배로 늘리고 유기형은 종전과 동일하게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가석방할 수 있

1) 가석방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은사·포상설, 행정처분설, 사회방위설, 행정제도설이 있으나, 우리 「형법」 제72조 제1항은 가석방의 법적 성질이 '행정처분'임을 명문으로 밝히고 있다(정승환·신은영, "가석방의 사법처분화 방안 연구", 「형사정책」, 제23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1, 213-215면; 박영규, "현행 가석방제도의 개선방안", 「교정연구」, 제62호, 한국교정학회, 2014, 10-11면).



도록 하고 있다.<sup>2)</sup>

형벌에서 자유형의 목적이 수형자의 교화·개선을 통한 사회 복귀(rehabilitation)에 있는 이상 이미 개선(改後)하여 사회적 위험성이 없는 자를 계속 구금한다는 것은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라는 교정의 목적에도 합치되지 않으며,<sup>3)</sup> 수형자의 사회 복귀만 늦추는 것이 아니라 수형시설의 과밀화, 교정행정의 어려움 등 또 다른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가석방제도는 불필요한 형집행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수형자의 사회 복귀를 앞당기는 동시에 형집행에서 수형자의 자발적인 사회 복귀 동기를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범죄 예방이라는 형사정책의 이념에 매우 충실하면서 효과적인 제도다. 가석방제도 활성화의 필요성이 당연히 요구되는 것이다.<sup>4)</sup>

## 2. 현행 가석방제도에 관한 논의 쟁점

우리나라의 가석방제도는 형법이 제정되기 전인 구「형법」(1950. 3. 2.) 제정 당시부터 존재하였다. 이후 구「형법」 제1차 개정(1961. 12. 23.)을 통하여 형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가석방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sup>5)</sup> 1969년「가석방 심사위원회 규정」이 제정되고, 1978년에는「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의 제정으로 가석방의 심사기준·취소절차 등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1992년 개정된「가석방자 관리규정」은 가석방자의 감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형법」에 의하면 가석방자는 행정관청이 필요 없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적으로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이후 가석방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모범수형자의 조기 사회 복귀를 위한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가석방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유로 구「형법」(1996. 12. 12.) 개정을 통해 각 교도소에 설치되어 있던「가석방 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법무부에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다. 이후 구「형법」(2007. 12. 21. 전부개정)을「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형집행법」)로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다.

현재 가석방의 성격을 단순한 형기 단축의 의미에서 벗어나 교정(Correction)의 입장에서 보호관찰과 연계된 사회 내 처우로서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다만 현행 가석방 심사위원회가「행정처분」으로 행하는 가석방 허가처분을 법원의「사법처분」으로 전환하여 가석방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보장하자는 견해가 유력하게 주장되고 있다.<sup>6)</sup> 또한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성인범과 소년범의 가석방 심사체계를 단일화하고 하나의 기구로 통합하여 보다 전문성을 갖추고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지자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가석방에 관련된 선행 연구들의 대부분은 형사정책적으로 가석방제도가 갖고 있는 다양한 긍정적 기능을 인정

하고 있다. 따라서 그 방법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가석방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에는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가석방제도 활성화에 대한 꾸준한 학계 및 실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나라의 가석방 비율은 형 만기출소자 대비 30% 이하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미국·일본 60%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가석방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여러 이유가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범죄자에 대한 부정적인「국민감정」이다.

이러한 논의 과정에 최근 교정에 회복적 사법을 적용하여 수형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견해가 새롭게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회복적 사법을 통한 교정은 기존의 응보적 사법에서 대립 관계에 있었던 가해자·피해자가 형사 절차의 마지막 교정 단계에서 여러 형태의 만남을 통하여 사죄·용서·화합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형사정책적으

2) 일본「형법」 제30조 제1항에서는「구류에 처한 자는 정상에 의하여 언제든지 행정관청의 처분에 의해 가출장(假出場)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못하여 유치되어 있는 자도 전항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석방이 불필요한 자유형 집행으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점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에게 불이익한 처우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구류, 3개월 미만 단기형, 노역장 유치에 대한 가석방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한재 노역장유치자의 가석방에 대해서는 우리 통설이 긍정하고 있다).

3) 수형자가 형 선고 시 받았던 비난을 완화할 정도로 준벌의식을 강화하였고, 출소한 후에도 다시 범죄를 저행할 것이 예상되지 않는다면 굳이 형 선고 시 평가와 비난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가석방제도의 본래 취지가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조준현, 「우리나라 가석방 기준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교정연구」 제67호, 한국교정학회, 2015, 15-16면).

4) 가석방제도는 첫째 정기형제도에 따른 결함의 보충, 둘째 사실 내 질서의 유지 및 수형자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에 의한 사회 복귀 동기 부여, 셋째 형기 종료 후에 사회적 적응 능력 용이, 넷째 개선한 수형자에 대한 불필요한 구금의 회피 등의 형사정책적 의의를 가진다고 본다(송광섭, 「범죄학과 형사정책」, 유스티니아누스, 1998, 533면). 또한 가석방의 기능을 범죄자를 사회에 재통합하고 범죄를 억제하는 명시적 기능과 교도소와 구치소의 과밀화를 해소하는 묵시적 기능으로 구분하기도 한다(장규원·진수명·이상용, 「가석방 심사체계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형사정책연구원, 1998, 35-37면).

5) 구「형법」(법률 제105호, 1950. 3. 2. 제정) 제48조~제51조(가석방)에는 가석방자를 구신(具申)하기 위하여「가석방 심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당해 소장이 위원장으로 2~4인 내의 위원을 두고 심사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구신하고 법무부장관은 구신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대적 의미의 가석방제도는 1953년「형법」 제정 시기 아니라 1950년 구「형법」 제정 시에 도입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교제 및 연구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가석방제도가 1953년「형법」 제정 이후에 채택된 것으로 보고 있다(송광섭, 앞의 책, 534; 강동범·이강민, 「가석방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정비방안」, 「교정연구」 제27권 제2호, 한국교정학회, 2017, 5면).

6) 가석방, 선고유예, 집행유예는 모두 실질적으로 모두 형벌을 집행해야 하는 경우지만 재범 위험성이 없고 재사회화를 위해 일정 기간 형 집행을 유보한다는 점에서 모두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의 보호관찰은 법원이 선고하는 반면, 가석방은 행정관청이 결정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형사제도에 대해서 가석방에 부과되는 보호관찰만 법원의 결정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어 실질적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다(정승환·신은영, 「가석방의 사법처분화 방안 연구」, 형사정책 제23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1, 221-222면). 이 외「사법처분」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강영철, 「가석방제도의 개선방안」, 「교정연구」 제21호, 한국교정학회, 2003; 문정민, 「사회내처우의 현황과 개선방안」, 「교정연구」 제17호, 한국교정학회, 2002; 장규원, 「가석방 심사체계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 등이 다수 있다. 실제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는 법원이 가석방을 허가 및 취소 결정을 하고 있으며, 스위스는 가석방 심사는 행정관청이 담당하지만, 보호관찰 및 준수 사항 부과와 가석방 취소는 법원이 개입하고 있다. 반면 가석방을「사법처분」과 달리「행정처분」으로 두고 있는 것은「합목적성」이 강조되는 행정 문제는 행정기관에 일임하는 것이 오히려 형벌 집행을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점에서「행정처분」으로 두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한영수, 현행 가석방 심사체계의 문제점, 형사정책 제15권 제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3, 157-158면).

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교정에서 회복적 사법제도의 도입은 가석방 제도를 포함한 수형자에 대한 시설 내외의 모든 처우에 일반 국민들의 긍정적인 인식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 즉 교정에서 회복적 사법은 형사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교정 절차에서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 및 피해 회복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수형자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정으로 뉘우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교정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범죄로 인한 우리 사회의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sup>7)</sup>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와 매우 유사한 가석방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최근 가석방제도 운영 현황 및 논의 상황을 통해 시사점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교정 통계 자료 비교 분석을 통해 현행 가석방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특히 최근 교정 단계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회복적 사법을 중심으로 가석방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 II. 최근 일본의 가석방제도 논의 상황

### 1. 개관

#### 1) 가석방 심리 과정

일본 「형법」은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 자로 개선의 정이 있는 때에는, 유기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을, 무기형의 경우는 10년을 경과한 후, 행정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sup>8)</sup> 또한 동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구류에 처한 자는 정상에 의하여 언제든지 행정관청의 처분에 의해 가출장(仮出場)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못하여 유지되어 있는 자도 전항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행정관청은 「지방更生보호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sup>9)</sup>로 전술한 가석방·가출장뿐만 아니라, 소년원에서의 (가)퇴원 여부를 판단·허가한다.<sup>10)</sup> 지방위원회는 사무국을 두고(동법 제20조) 사무국에 보호관찰관<sup>11)</sup>을 배치한다. 교정시설의 장 또는 소년원의 장은 「형법」 제28조 또는 「소년법」 제58조 제1항<sup>12)</sup>에서 규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그 취지를 보호위원회에 통고하고(법정기간경과보고서의 송부), 통고와 함께 지방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한편 교정시설의 장이 법정기간이 경과하고, 신상조서사에 근거한 보호관찰소의 조사가 타당하며, 행형 성적이 양호한 등 가석방의 제 조건이 정비되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가석방 허가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동법 제34조 제1항). 구류 또는 노역장 유지에 있는 자도 동일하다(동법 제34조 제2항). 이때 그 가석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지방위원회의 심리가 개시된다(동법 제24조 참조).

다만 일본 「更生보호법」에서는 교정시설의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석방 또는 가출장(仮出場)의 가부에 대한 심리를 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동법 제35조 제1항), 교정시설로부터의 가석방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가석방 허가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지방위원회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하여 심리가 개시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직권에 의한 가석방심리). 그러나 실상은 신청에 의한 가석방심리가 대부분이고, 직권에 의한 가석방심리의 개시는 많지 않다.<sup>13)</sup>

#### 2) 지방위원회의 결정과 가석방 허가 기준

가석방에 대한 의사 결정은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지방위원회의 합의체에서 결정한다. 가석방 여부를 위한 의사 결정을 할 때에는, 지방위원회 위원은 가석방 대상자를 면접하여야 한다(동법 제37조

7) 최근 회복적 사법의 이념에서 수형자의 재사회화를 유도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도 추구하고자 하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보호관찰소에서는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2018년 「청소년 갈등 해결 씨름(Collict Solution Circle)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피해자-가해자 입장 생각해 보기」, 「공간과 경청」 등을 통해 관계 회복을 모색하였다고 한다(배인호, 「회복적 사법정의(Restorative Justice)에 근거한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교정복지실천 개입에 관한 연구-17년 동안 교정복지실천 케이스를 중심으로-」, 교정연구 제29권 제호, 한국교정학회, 2019, 8면). 또한 2001년 안양교도소에서는 「죄와 화해」를 주제로 「무화과나무 프로젝트(Sycamore Tree Project)」를 실험적으로 실시하였으며, 2006년 2월 법무부가 발간한 「법무부 변화전략계획-희망을 여는 약속」에서 교정 단계 회복적 사법에 대하여 처음으로 공식 언급하였는데,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교통사범, 단순폭력 등 경범죄자에게 적용한 「가해자-피해자 화해」 프로그램이다(김영식, 「교정단계 회복적 사법적용 사례에 관한 연구」, 교정당론 제7권 제호, 아시아교정포럼, 2013, 281~289면 참조). 이 외 교정에 있어 회복적 사법 적용에 관한 연구로는 김용세·류병관, 「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의 가능성」, 연구총서 06-4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이진규, 「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의 실천방안」, 「교정연구」 제27권 제호, 한국교정학회, 2017; 박호현·백일홍·장규원, 「회복적 사법과 교정」, 「교정연구」 제26권 제4호, 한국교정학회, 2016; 이훈동, 「교정 단계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과제와 전망」, 「외법논집」 제34권 제4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안성운, 「회복적 사법과 재범 방지에 관한 소고」, 「범죄와 비행」, 2012 등이 있다. 대부분 연구논문이 형사법의 전 분야에서 회복적 사법 도입의 긍정적 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이순래, 「회복적 사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공공정책연구」 제34집 제2호,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18와 이용식, 「회복적 정의와 형사법 정의-두 정의의 '절충'은 가능한 것인가?」, 「동아법학」,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이용식, 「회복적 사법에 대한 비판적 소고-소년법을 중심으로-」, 「소년보호연구」 제3권 제3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8는 전통적사법과의 충돌 등을 이유로 회복적 사법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8) 일본 「형법」 제28조(최종개정 2018년 7월 13일 공포, 법률 제72호).

9) 일본의 지방위원회는 전국 8개소로 고등재판소에 대응하여 설치되어 있다. 「更生보호법」 제23조에서 동 법을 등에서 규정하는 처분 등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3명을 위원으로 하는 합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합의체는 전국에 22개(北海道2, 東北2, 関東5, 中部2, 近畿4, 中国3, 四国1, 九州3)가 있으며, 여기에서 전국 교정시설(형무소, 구치소, 소년원 등)의 가석방 여부를 판단한다(久保 貴, 「更生保護の現状と課題-地方更生保護委員会委員から見た仮釈放についての考察-」, 矯正講座 제37号, 2017, 126면).

10) 일본 「更生보호법」 제16조(최종개정 2016년 6월 3일 공포, 법률 제54호).

11) 보호관찰관에는 보호관찰소에 배치되어 사회 내 치우친 보호관찰을 실시하는 보호관찰관과, 지방위원회에 배치되어 가석방 심리를 위한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으로 분류되며, 후자는 전국 8개소의 지방위원회에 약 140명 정도의 보호관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久保 貴, 위의 글, 126면).

12) 일본 「소년법」 제58조 제1항은 소년의 때에 징역 또는 금고에 연도 받은 자가, 무기형은 7년(제1호), 원래 무기형을 선고하여야 하나 유기형을 처한 경우에는 형기의 3분의 1(제2호), 동법 제52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하는 부정기형의 경우에는 그 형의 단기의 3분의 1(제3호)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3) 실제로 2016년의 가석방심리사건은 17,059건이었지만, 그중 교정시설의 신청에 의하지 않은, 즉 지방위원회의 직권에 의한 가석방 심리는 39건으로 약 0.2%에 지나지 않았다(久保 貴, 「書評 仮釈放の理論-矯正保護の連携と再犯防止」, 犯罪社会学研究 第43号, 2018, 168면).



제1항).<sup>14)</sup> 실제 실무에서도 통상적으로 위원이 면접을 실시하며, 특히 성인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하여 위원의 면접이 이루어지고 있다. 면접은 개별면접으로 위원은 담당 교정시설에 직접 가서 대상자 한 명 한 명과 일대일 방식으로 면접을 실시한다. 면접 소요 시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나 대략 한 사람당 45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며, 대부분의 경우가 1회의 면접으로 끝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수회의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sup>15)</sup> 이와 같은 면접을 토대로 지방위원회의 합의체는 가석방(내지 가출장(仮出場))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며(동법 제39조 제1항), 이때 가석방 날짜와 함께 귀향지도 특정하여야 한다(동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 결정 시에는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고(동법 제26조)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동법 제27조 제1항). 만약 가석방의 허가 결정이 있을 후, 가석방에 상응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석방의 심리를 재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미 이루어진 가석방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sup>16)</sup> 물론 가석방이 된 후라도 해당 가석방은 취소될 수 있다. 즉 일본 「형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가석방 중에 죄를 범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처해질 때(제1호), 가석방 전에 범한 다른 죄로 벌금 이상의 형에 처해질 때(제2호), 가석방 전에 범한 다른 죄로 벌금 이상의 형에 처해진 자로 그 형의 집행을 해야만 하는 때(제3호), 가석방 중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때(제4호)에 가석방을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그 판단도 지방위원회에서 한다. 특히 제1호와 제4호에 의하여 가석방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가석방에 대한 당초의 허가 판단이 적절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므로 재검토의 대상이 된다.<sup>17)</sup>

한편 가석방을 허가하기 위한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범죄자 및 비행소년에 대한 사회 내 처우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동 규칙 제28조에서는 ‘회오(悔悟)의 정’ 및 ‘개선 갱생의 의욕’이 있고, 재범의 우려가 없으며, 보호관찰을 하는 것이 개선 갱생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석방을 위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회의 감정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를 정리하면 가석방의 허가 기준은 (1) 회오의 정 및 개선 갱생의 의욕, (2) 재범의 우려가 없을 것, (3) 사회 내 처우로의 이행이 본인의 개선 갱생에 이로울 것, (4) 사회의 용인 등 4가지 요건으로 정리될 수 있다. 지방위원회 위원은 관계 자료의 내용 및 대상자와의 면접을 통해서 상기 4가지 요건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증을 형성한 후, 지방위원회 합의체에 회부한다. 실무적으로는 통상 (1)과 (3)의 경우 면접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나, (2)와 (4)는 심증의 형성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1)부터 (4)의 요건은 각각 독립적인 것은 아니고 상호 관련성을 갖는 경우가 많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각 요건 간의 중요성이 다를 수 있어 모든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sup>18)</sup> 다만 일부 견해에 따르면, 가석방의 본질이 ‘보호관찰을 통한 재범 위험성의 최소화’라고 한다면, 가석방의

허가 기준으로써 범죄의 정상, 피해자 또는 사건에 대한 본인의 태도, 본인의 성행, 처우의 경과, 갱생 계획을 판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한다.<sup>19)</sup>

## 2 가석방의 현황

일본의 최근 통계를 살펴보면 2015년 가석방 심리는 17,988명이었고, 2016년에 17,059명, 2017년에 14,289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심리 종료 후의 가석방 인원도 2015년에 16,832명, 2016년 16,099명, 2017년 12,760명으로 감소 경향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20)</sup> 한편, 교정시설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위원회가 심리를 하고, 심리의 결과 가석방을 허가하지 않은 비율을 보면 2015년에는 6.7%, 2016년에는 7.1%였다. 약 10년 전인 2007년에 10.0%인 것을 감안하면, 가석방 심리 후 7~10% 정도가 가석방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21)</sup> 형기 만료 등 전체 형무소 출소자 중 가석방이 접하는 비율은 60%이고,<sup>22)</sup> 전술한 바와 같이 7~10%가 심리에서 탈락한다고 한다면, 실제로 교정시설에 의한 가석방 허가 신청이 이루어진 사안은 70%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는 30%는 지방위원회에 의한 심리조차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통계 자료에 대하여는 두 가지 점에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는 가석방의 법정기간을 충족한 30%가 교정시설의 판단에 의하여 지방위원회의 심리조차 받지 못한다는 것으로, 지방위원회의 직권에 의한 가석방심리의 활성화로 이 비율은 대폭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고,<sup>23)</sup> 둘째는 지방위원회 심리에서 탈락하는 7~10%의 비율은

14) 다만, 그 가석방 대상자에게 중한 질병 또는 상해가 있어 면접이 곤란한 경우나, 법무성령이 정하는 경우로 면접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37조 제4항 단서).

15) 지방위원회 주요 업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久保 貴, 앞의 글, 135~136면 참조.

16) 동법 제39조 제4항은 가석방의 결정을 받은 자로 그 석방 사이에 시설 내의 규율 및 질서를 해하거나, 석방 후의 주거지나 취업 대상지 및 그 밖의 생활환경에 현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나아가 석방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생겼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석방(또는 가출장)의 심리를 재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상적으로는 이와 같이 상황이 단기간으로는 개선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17) 久保 貴, 앞의 글, 133면.

18) 한편 가출장(仮出場)의 허가 기준에 대하여는 동 규칙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구류집행을 위해 형사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 또는 노역장에 유치되어 있는 자의 심신의 상황, 수용 또는 유치 기간, 사회 감정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가출장(仮出場)을 허가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久保 貴, 앞의 글, 134면).

19) 太田達也, 『反釈放の理論-矯正保護の連携と再犯防止』, 慶応義塾大学出版会, 2017年, 120면.

20) 法務省, 『平成30年版 犯罪白書』, 法務省, 2018年, 웹사이트 <http://hakusyo1.moj.go.jp/jp/65/>

21) 가석방의 심리에는 형무소 등으로부터의 가석방뿐만 아니라, 소년원으로부터의 가퇴원도 포함하는데 소년원으로부터의 가퇴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 허가한다고 볼 때, 이 비율은 일반적인 가석방에 대한 심리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久保 貴, 앞의 글, 137면).

22)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 중 가석방으로 출소한 자의 비율은 2005년 이래 6년 연속 감소 추세였으나, 2011년부터 상승으로 전환하여 2016년과 2017년 각각 58%에 이르는 등 약 60%가 가석방에 의하여 출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法務省, 『平成30年版 犯罪白書』, 法務省, 2018年, 웹사이트 [http://hakusyo1.moj.go.jp/jp/65/nim/n65\\_2\\_2\\_5\\_1\\_1.html](http://hakusyo1.moj.go.jp/jp/65/nim/n65_2_2_5_1_1.html)(최종검색일 2019. 4. 28)).

교정시설에서 가석방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여 신청한 7~10%가 결국 지방위원회와 교정시설의 관점 차로 인하여 가석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위원회에서 어떤 관점에서 심리를 진행하는지 분명하지 않다는 비판의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sup>24)</sup>

반면 2016년 지방위원회로부터 가석방이 취소된 건수는 625건이었는데, 새로운 형이 확정됨으로써 가석방이 취소된 경우는 1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624건은 모두 준수 사항 위반으로 취소된 것이다. 연도별 취소 건수를 살펴보면, 2015년 652건, 2014년 647건, 2013년 650건, 2012년 683건 등으로 1년 평균 약 650건 정도가 취소되고 있고 거의 일정한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가석방 된 건수에서 보면 약 3.9%에 해당하며, 가령 가석방을 100건으로 봤을 때 약 4건에 해당하는 수치이다.<sup>25)</sup>

### 3. 가석방에 대한 최근 일본의 논의 상황

#### 1) 시설 내 처우와 사회 내 처우의 연대 강화를 위한 고시기간주의 도입

현재 일본에서도 재범 방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석방과 보호관찰에 대한 논의가 형사정책의 중요 과제로 재부상하고 있다. 법무성은 2015년 '약년자(若年者)에 대한 형사법제의 올바른 방향에 관한 연구회(若年者に対する刑事法制の在り方に関する勉強会)'를 조직하고, '시설 내 처우'와 '사회 내 처우'와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조치로써 시설 외 기관 등과의 연대를 통한 교정처우의 충실과 사회 내 처우에 필요한 기간의 확보를 거론한 바 있다. 이때 가석방 기간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고시기간주의(考試期間主義)의 채용을 주장하였다.<sup>26)</sup> 또한 특정범죄 경향이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전문적 처우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의 확보가 중요하지만, 가석방 기간이 짧은 경우 동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어렵다는 인식하에 형사시설과 보호관찰소가 긴밀히 연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하였다. 나아가 기소유예 시의 재범 방지 조치로써 갇생을 위한 긴급보호를 기소유예 처분 전에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그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기소유예 시 검찰에 의한 훈계와 지도를 명문화하는 방안도 거론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2017년 법무성 '법제심의회의' 안건으로도 제시되었고 이후 '시설 내 처우와 사회 내 처우와의 연대' '사회 내 처우에 필요한 기간의 확보' '기소유예 시 재범 방지조치' 등의 형태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sup>27)</sup>

#### 2) 가석방 요건으로서의 법정 기간의 구체화

일본은 형법 제28조에서 유기형의 경우에는 형기의 3분의 1을, 무기형의 경우에는 10년을 경과함으로써 가석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률적 법정 기간에 대하여 그 기간을 세부적으로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sup>28)</sup> 이 견해에 따르면 교정시설에서의 교정 처우 후에 가석방이 이루어지고, 가석방 후 보호관찰에 의한 개선 갇생과 재범 방지가 시도된다고 할 때, 형사

시설에서의 교정 처우와 가석방 후의 보호관찰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가석방의 시기도 수형자의 개선 갇생과 재범 방지에 가장 부합하는 시점에서 정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 3) 지방위원회에 의한 독자적 심리 개시권의 강화

지방위원회의 기능은 범죄를 범한 자의 개선 갇생과 재범 방지의 관점에서 보호관찰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자의 가석방을 허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지방위원회의 가석방 심리는 교정시설로부터의 허가 신청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호관찰의 상당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불충분하다. 이에 가석방제도를 실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가석방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위원회에 의한 독자적 심리개시권의 강화가 지적되고 있다. 일본 「갱생보호법」 제35조는 지방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독자적으로 가석방 또는 가출장(仮出場) 여부에 대한 심리를 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지방위원회는 교정시설의 가석방 허가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가석방 심리에 대한 개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지방위원회에 의한 독자적 심리개시권의 활성화는 기간이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정시설이 신청하지 않은 가석방 사안에 대한 심리를 확대하고, 지방위원회의 검토 기능을 한층 강화하는 역할을 부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sup>29)</sup> 나아가 법정 기간의 도래 시점에서 제1회 심리를 지방위원회의 의무로 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법정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가석방이 될 수 있는 형식적인 요건은 충족되었다면, 당연히 실질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지방위원회의 심리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이다.<sup>30)</sup>

23) 久保 貴, 주 7의 글, 166면.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후술의 '가석방에 대한 최근의 논의'에서 설명한다.

24) 久保 貴, 앞의 글, 137~138면.

25) 法務省, 「平成30年版 犯罪白書」, 法務省, 2018년, 웹사이트 [http://hakusyo1.moj.go.jp/jp/65/nim/n65\\_2\\_2\\_5\\_1.html](http://hakusyo1.moj.go.jp/jp/65/nim/n65_2_2_5_1.html) 참조(최종 검색일 2019. 4. 28).

26) 若年者に対する刑事法制の在り方に関する勉強会, "とりまとめ報告書", 法務省, 2016. 11년; 미국모델형법, 스위스형법, 폴란드 등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서, '고시기간주의'란 가석방 기간이 현재 단기간인 경우에도 최소 1~2년의 기간 동안 가석방 기간으로 하여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유기형에서 잔형기가 너무 짧은 경우 가석방자의 사회 복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필요적 보호관찰을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형집행률이 80~90%에 이르기 때문에 가석방 기간이 극히 짧은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고시기간주의 도입 여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자세한 내용은 박영규, 앞의 글, 24~25 참조).

27) 武内 謙治, "必要的仮釈放制度の刑事政策上の一断面-法制審議会刑事法特別委員会および小委員会の議論を素材に-", 法政研究, 第84巻 第3号, 2017년, 877면.

28) 유기형의 경우에는 3년을 기준으로 하여, 3년 미만의 경우 형기의 2분의 1(재입소자의 경우에는 3분의 2을, 3년 이상의 경우에는 형기의 3분의 2(재입소자의 경우에는 4분의 3)가 경과하여야 가석방이 가능한 것으로 하고, 무기형에 대해서는 유기형의 상한을 단기로 종신을 장기로 하는 부정기형으로 하되, 가석방을 위한 법정 기간을 15년(재입소자의 경우에는 20년)으로 하는 안을 제안하였다(太田達也, 앞의 책, 39면).

29) 久保 貴, 앞의 글, 139~140면.

30) 太田達也, 앞의 책, 42~43면.



#### 4) 복수면접의 활성화

가석방의 심리를 충실히 하고 가석방 허가 여부의 적절한 판단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위원회 위원의 복수면접이 제시되고 있다. 복수면접은 이미 무기형 수형자의 가석방 심리에서 실시되고 있지만, 전국의 지방위원회 합의부가 22개에 불과하고 심리해야 하는 건수는 많은 상황에서 대다수 유기형 수형자에 대해서도 여러 번의 면접을 실시하는 것은 현 체제하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만기 석방에 비해서 가석방 시의 재범률이 현저히 낮은 점을 고려하면 가석방과 그 후의 사회 내 처우를 보다 충실히 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지방위원회의 조직 체계를 보다 충실히 함으로써 복수의 면접이 가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또한 지방위원회 위원이 행하는 면접의 의의와 본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위원이 가석방 대상자 한 사람 한 사람과 일대일로 면접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석방 여부에 대한 심증을 얻기 위한 것이 주요 목적이거나, 면접을 통하여 대상자 자신으로 하여금 지난일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문제점을 발견하며, 나아가 출소 후의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함으로써 장래의 생활 방식에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의 태도로 나아가는 노력을 하게끔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설교 내지 반성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생각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위원의 면접에서 요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 복귀에 마주하는 본인의 의지가 없으면 주위의 원조가 있다 하더라도 온전한 사회 복귀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을 때부터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은 필요하며, 위원의 면접에서도 그와 같은 점이 요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31)</sup>

### III. 우리나라 가석방제도 운영 현황과 문제점

#### 1. 가석방 인원 현황

아래 <표 1>은 최근 10년간 가석방 신청 인원 대비 허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2011년도 이후 아동 및 여성을 대상으로 강력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불안감이 증폭되자 보다 엄정한 형집행과 가석방의 제한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추어 가석방 신청 및 허가 인원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sup>32)</sup> 이후 2016년부터 수용 인원 급증으로 인한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위해 모범수형자, 사회적 약자(환자, 장애인, 고령자 및 외국인) 및 생계형 범죄자에 대한 가석방을 확대 시행하여 가석방 허가 인원이 다시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33)</sup>

<표 1> 성인수 가석방 허가율(2008~2017년)

| 연도   | 신청 인원 | 허가    |      | 불허 <sup>34)</sup> |      |
|------|-------|-------|------|-------------------|------|
|      |       | 인원    | 비율   | 인원                | 비율   |
| 2008 | 9,543 | 8,389 | 87.9 | 1,154             | 12.1 |
| 2009 | 9,046 | 8,252 | 91.2 | 794               | 8.8  |
| 2010 | 8,626 | 7,995 | 92.7 | 631               | 7.3  |
| 2011 | 7,574 | 7,065 | 93.3 | 509               | 6.7  |
| 2012 | 6,996 | 6,444 | 92.1 | 552               | 7.9  |
| 2013 | 6,903 | 6,148 | 89.1 | 755               | 10.9 |
| 2014 | 6,298 | 5,361 | 85.1 | 937               | 14.9 |
| 2015 | 6,216 | 5,480 | 88.2 | 736               | 11.8 |
| 2016 | 7,474 | 7,126 | 95.3 | 348               | 4.7  |
| 2017 | 8,797 | 8,247 | 93.7 | 550               | 6.3  |

출처 : 법무연수원, 『2018범죄백서』, 2019, 475면

#### 2. 가석방자 형집행률

<표 2>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연도별 가석방자의 형집행률을 보여 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가석방자의 형집행률이 대부분 80~90% 이상으로 형집행률이 매우 높아 실질적으로 가석방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sup>35)</sup>

<표 2> 성인수 가석방자 형의 집행률 현황(2008~2017년)

| 연도   | 형집행률   | 계 | 50% 미만     | 60% 미만      | 70% 미만          | 80% 미만           | 90% 미만           | 90% 이상 |
|------|--------|---|------------|-------------|-----------------|------------------|------------------|--------|
| 계    | 70,716 | — | 1<br>(0.0) | 17<br>(0.0) | 5,761<br>(8.2)  | 39,646<br>(56.5) | 24,751<br>(35.3) |        |
| 2008 | 8,389  | — | —          | 6<br>(0.1)  | 383<br>(4.6)    | 3,780<br>(45.0)  | 4,220<br>(50.3)  |        |
| 2009 | 8,252  | — | —          | 1<br>(0.0)  | 655<br>(7.9)    | 4,804<br>(58.2)  | 2,792<br>(33.8)  |        |
| 2010 | 7,995  | — | —          | 1<br>(0.0)  | 908<br>(11.4)   | 5,117<br>(64.0)  | 1,969<br>(24.6)  |        |
| 2011 | 7,065  | — | —          | 3<br>(0.0)  | 759<br>(10.7)   | 4,654<br>(65.9)  | 1,649<br>(23.3)  |        |
| 2012 | 6,444  | — | 1<br>(0.0) | —           | 548<br>(8.5)    | 3,953<br>(61.4)  | 1,942<br>(30.1)  |        |
| 2013 | 6,148  | — | —          | 1<br>(0.0)  | 469<br>(7.6)    | 3,786<br>(61.6)  | 1,802<br>(30.8)  |        |
| 2014 | 5,361  | — | —          | —           | 433<br>(8.1)    | 3,197<br>(59.6)  | 1,731<br>(32.3)  |        |
| 2015 | 5,480  | — | —          | —           | 293<br>(5.3)    | 3,075<br>(56.1)  | 2,112<br>(38.6)  |        |
| 2016 | 7,126  | — | —          | 5<br>(0.1)  | 926<br>(13.0)   | 3,849<br>(54.0)  | 2,346<br>(32.9)  |        |
| 2017 | 8,247  | — | —          | 17<br>(0.2) | 1,494<br>(18.1) | 4,795<br>(58.1)  | 1,941<br>(23.5)  |        |

출처 : 법무연수원, 『2018범죄백서』, 2019, 477면

31) 久保 貴, 앞의 글, 139~140면.

32) 이러한 현상은 반복되고 있는데, 실제 2002년 이후 증가해서 2005년까지 92%를 나타내던 가석방 허가율이 2006년 84.7%(불허가 15.3%)로 급격히 떨어졌는데, 이러한 이유가 2006년 이후 아동 및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 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국민의 불안감과 여론 등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김준성, 앞의 글, 269면).

33) 신청자 대비 가석방 허가율보다 중요한 것이 전체 수형자 석방 인원 대비 가석방이 차지하는 비율일 것이다. 즉 전체 수형자 석방 인원 대비 최근 가석방률이 향상될수록 가석방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34) 우리나라와 비슷한 심사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 지방위원회가 심리를 하고 심리의 결과 가석방을 허가하지 않은 비율은 2015년에는 6.7%, 2016년에는 7.1%였다. 2007년 불허가 10%인 것을 감안하면 가석방 심리 후 약 7~10% 정도가 가석방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5) 가석방 심사 확정자들의 평균 복역률 80%를 상회한다는 것은 가석방 심사 관련 복역 기간의 1/3 기준의 근본 문제가 아니라 ① 교정 당국 자체가 교정 프로그램을 연계하지 않는 것, ② 교정기관 내 교정 프로그램 실패의 인정, ③ 교정 당국의 수형자 재사회화에 대한 포기, ④ 국민의 법 감정에 대한 눈치 보기가 원인이 되어 높은 복역률이 유지된다는 비판이 있다(박미랑, 앞의 글, 162면).

## 본부 소식



### 법무부 - 태백시 교정시설 신축 업무 협약 체결

법무부와 태백시는 10월 2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태백시 관내 교정시설 신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태백시는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을 완화하고 태백시의 지역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 태백 교정시설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법무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의 적극적인 업무 협의로 과밀수용 완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태백 교정시설 신축을 추진하였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태백 교정시설을 조성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태백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안전하고 편리한 법무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전국 교정기관 수형자,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20명 입상

'제54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전국 교정기관 수형자 20명이 입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이번 대회는 10월 4일부터 11일까지 부산광역시에서 열렸으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등 16개 기관에서 32명의 수형자가 참가하였다. 수형자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회인들과 경쟁하여 웹디자인 및 개발, 실내장식, 냉동 기술, 타일 등 11개 직종에서 금상 4개, 은상 5개, 동상 2개, 우수상 3개, 장려상 6개를 수상하여 최근 10년간 가장 우수한 성적을 기록하였다.

법무부는 수형자가 출소 후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35개 교정기관에서 82개 직종의 직업훈련을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직업교육을 강화하여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더 많은 교정본부 소식은 교정본부 홈페이지([www.corrections.go.kr](http://www.corrections.go.kr)) 또는 페이스북([www.facebook.com/mojcor](http://www.facebook.com/mojco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교정의 날 기념 기자 및 작가 대상 교도관 체험 실시

교정본부는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안양교도소, 수원구치소 등 7개 기관에서 1박 2일 동안 기자 및 작가를 대상으로 교도관 체험을 실시하였다. 교정의 날을 맞아 추진된 이번 체험 행사는 교정에 대한 폐쇄적이고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교정행정 기능 및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체험 행사에는 중앙일보, 한겨레 등 법조출입기자 8명과 CJ ENM 오픈 작가 3명이 참가하였으며, 참가자들은 근무복을 착용하고 부서별 업무 및 야간 순찰 근무를 체험하였다.

### 국민 참여형 교화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

교정본부는 국민이 직접 자신만의 이야기를 통해 일일 라디오 디제이로 참여할 수 있는 국민 참여형 교화라디오 프로그램 '12시의 면회'를 신설하여 11월 1일 첫 방송하였다. 매주 금요일에 교화방송센터 수용자 교화 라디오 방송을 통해 소개되는 이 프로그램은 각계각층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국민과 수용자 간의 정서적 거리감을 해소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카카오톡 채널 '보라미 방송'을 통해 수용자 가족이 목소리를 녹음해 보내면 이를 라디오에서 수용자에게 음성 메시지로 전달하는 가족친화형 프로그램 '말하면... 달을까요'도 신설, 매주 금요일 방송한다.



### 형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교정본부는 수용자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권 회복·재심 청구 시 변호사와의 접견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형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10월 24일부터 시행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수용자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권 회복·재심 청구 시 변호사를 정식으로 선임하기 전이라도 회당 60분 한도에서 접촉 차단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접견이 허용된다. 접견 횟수는 사건당 2회까지 가능하다.

앞으로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권 회복·재심 청구 사건에서 재판청구권 등 수용자의 기본권을 더욱 폭넓게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엄마의 목소리’ 전국 기관 확대 시행

법무부는 여성 수용자와 자녀 간의 유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엄마의 목소리’ 프로그램을 10월부터 전국 기관에서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엄마의 부재에서 오는 수용자 자녀의 상실감을 완화하기 위해 동화책을 읽는 여성 수용자의 목소리를 녹음해 자녀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분기별로 희망자를 선정하여 월 1회씩 총 3회 실시할 예정이다.

## 일선기관 소식

### 서울지방법고정청

#### 서울지방법고정청 | 교위 유경열

##### ‘엄마, 아빠 직장 체험의 날’ 행사 개최

서울지방법고정청은 10월 29일 직원 자녀들이 부모의 직장에 대해 이해하고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도록 하기 위해 ‘엄마, 아빠 직장 체험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아이들이 바라보는 부모에 대한 생각을 영상으로 시청하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림을 통해 교정공무원이 하는 일에 대해 알아보았다. 행사에 참여한 아이들은 명예 공무원증을 받기도 하였다.

#### 서울구치소 | 교사 변무관

##### 사격 훈련 실시

서울구치소는 10월 4일 2056부대 3세대 실내 사격장에서 사격 훈련을 실시하였다. 업무가 바쁜 와중에도 대부분의 직원이 사격 훈련에 성실히 임하여 자체 방호 능력을 배양하고 유사시 비상 대비 태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안양교도소 | 교위 유승현

##### 교정의 날 기념 직원 체육대회 개최

안양교도소는 10월 23일 교정의 날 기념 직원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풋살 대회에 각 과에서 15개 팀이 출전하여 10일 동안 토너먼트 경기를 치른 끝에 직업훈련과가 최종 우승을 차지하였다. 이날 단체 줄넘기 종목이 함께 열려 직원들이 화합하는 장이 되었다.



#### 수원구치소 | 교위 배창현

##### 법조출입기자 교도관 체험 실시

수원구치소는 10월 21일과 24일 교정의 날을 맞이하여 변화된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능동적인 홍보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법조출입기자를 대상으로 교도관 체험을 실시하였다. 참가자들은 1박 2일 동안 엄중 계호 수용동 근무(주간)와 순찰 근무(야간)를 체험하며 교도관들의 희로애락을 깨달았다.

#### 서울동부구치소 | 교사 최재완

##### 환경 정비의 날 행사 개최

서울동부구치소는 10월 8일 민원인들에게 깨끗한 기관 이미지를 제고하고 직원들에게는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 환경 정비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직원들은 청사 앞, 외부 정문 진입로, 시설 외부 인도 등을 정비하고 간단한 다과회를 통해 화합과 소통을 도모하였다.



#### 인천구치소 | 교사 김대현

##### 인천용마초등학교 참관 행사 개최

인천구치소는 10월 7일과 8일 인천용마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참관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참가자들은 구내 시설과 가족 만남의 집 등을 둘러보고 교정공무원에 대해 이해했으며, 교정행정의 발전된 모습을 확인하였다.



#### 서울남부구치소 | 교위 김광찬

##### 천왕중학교 참관 행사 개최

서울남부구치소는 10월 11일 천왕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참관 행사를 개최하였다. 학생들은 참관에 앞서 교정공무원 · 교정시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신입실, 수용 거실 등을 둘러보며 교정행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였다.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교위 이재희

##### ‘아름다운 국립공원 사진 전시회’ 개최

화성직업훈련교도소가 10월 21일부터 11월 4일까지 ‘아름다운 국립공원 사진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전시 작품은 국립공원 사진 공모전에서 입상한 사진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 홍보팀으로부터 협찬받은 24점이다. 민원실과 수용동 복도에 사

진을 배치함으로써 민원인에게는 힐링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한편, 수용자들의 심성을 순화하고자 하였다.



#### 의정부교도소 | 교도 김주용

##### 수형자 도서관 개관식 개최

의정부교도소는 10월 7일 수형자 도서관 개관식을 개최하였다. 기존 도서관을 리모델링하여 더 깨끗한 환경으로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도서관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새마을문고 의정부지부에서 신간 도서 1,470권을 기증받아 총 1만여 권의 도서를 보유하게 되었다.

#### 여주교도소 | 교사 송재훈

##### 교정의 날 기념 한마음 족구 대회 개최

여주교도소는 10월 28일 제74회 교정의 날을 기념하여 전 직원 한마음 족구 대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대회를 위해 9월 초부터 16개 팀이 출전하여 예선 경기를 치렀다. 행사 당일에는 다양한 경품 추첨과 결승전이 치러졌으며 우승은 보안부가 차지하였다.

#### 서울남부교도소 | 교사 명수환

##### 경기대학교 교정보호전공 참관 행사 개최

서울남부교도소는 10월 18일 경기대학교 교정보호전공 재학생을 대상으로 수용자의 처우 및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참관 행사를 개최하였다. 학생들은 중앙통제실, 훈련동, 수용동, 심리치료센터 등을 둘러보며 깊은 관심을 보였다.

#### 춘천교도소 | 교도 이견희

##### 직원 가족 참관 행사 개최

춘천교도소는 10월 16일 소속 직원 가족들을 초청하여 참관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직원 가족들에게 교정행정의 발전된 모습을 알리고 근무 현장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행사에 참여한 가족들은 직원들의 안내를 받아 수용동과 작업장 등을 돌며 가족이 일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었다.



## 대구지방교정청

### 원주교도소 | 교사 천병훈

#### 개청 40주년 기념 국화 전시회 개최

원주교도소는 10월 21일 수용자의 심성 순화를 목적으로 재배한 국화 590여 점을 일반 시민에게 공개하는 '개청 40주년 기념 국화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원주교도소의 역사가 담긴 사진 작품 40여 점과 원주 '더 좋은 날 시조 교실'이 후원한 시화 작품 30여 점이 전시되었다. 포토 존, 시민 오케스트라 앙상블 공연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마련되었다.

### 강릉교도소 | 교위 이태석

#### 동해묵호고등학교 참관 행사 개최

강릉교도소는 10월 16일 동해묵호고등학교 교직원 및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참관 행사를 개최하였다. 학생들은 이날 시설을 둘러보고 교정공무원에 대한 직업 특강을 들으며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 영월교도소 | 교도 서주현

#### 직원 봉사회 '까막딱다구리' 봉래중학교에 장학금 전달

영월교도소는 10월 22일 봉래중학교를 방문하여 모범 학생 4명에게 장학 증서 및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이번 장학금은 2012년 체결한 정기 지원 협약의 일환으로, 영월교도소 직원 봉사회 '까막딱다구리' 회원들의 회비로 마련되었다.

###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 교위 김관순

#### 교정위원 간담회 개최

수원구치소 평택지소는 10월 17일 평택 W웨딩홀에서 교정위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수용자 교정교화 및 사회 복귀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온 평택지소 종교위원, 취업위원 등 교정위원들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 우대는 위원 등 8명에게 법무부장관 표창 및 교정부부장 감사패, 서울지방교정청장 표창패를 전달하였다.

### 소망교도소 | 9직급 배현승

#### 2019년도 제2회 가족 만남의 날 실시

소망교도소는 10월 18일 수용자와 가족 간의 유대 강화 및 가족 관계 회복을 위해 '가족 만남의 날'을 실시하였다.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이번 행사에는 수용자 34명과 99명의 가족이 함께 하였다.

### 대구지방교정청 | 교위 최현철

####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실시

대구지방교정청은 10월 23일 대구 달구벌종합복지관 보호센터 김영중 강사를 초빙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 내용은 장애의 정의 및 유형,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관련 법과 제도 등으로 구성되었다.

### 대구교도소 | 교위 김재현

#### 사격 훈련 실시

대구교도소는 10월 8일 육군 제501보병여단 7대대 사격장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격 훈련을 실시하였다. 유사시 교정시설 자체 방호 및 통합방위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대구교도소는 사격 훈련에 앞서 안전 교육과 총기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였다.



### 부산구치소 | 교사 박창훈

#### 제74주년 교정의 날 기념 어린이 유도 대회 개최

부산구치소는 10월 19일 제74주년 교정의 날을 앞두고 '제5회 부산구치소 어린이 유도 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는 유치부, 초등부의 개인전과 부산·경남 지역 사설 유도관 5개 팀의 단체전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대회를 통해 부산구치소는 지역주민들에게 지역과 함께하는 교정행정을 홍보하였다.



### 경북북부제1교도소 | 교도 진용혁

#### 찾아가는 차량 무상 점검 서비스 실시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10월 21일 지역 소재 기아자동차 서비스와 협력하여 찾아가는 차량 무상 점검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이날 기아자동차 전문 서비스 기술자들은 소를 방문하여 직원들의 차량을 점검하고 노후 부품을 교체해 주었다. 또한 차량 유지 관리에 대한 노하우도 알려 주어 직원들의 만족을 이끌어 냈다.

### 창원교도소 | 교도 한기상

#### 인제대학교 상담심리치료학과 참관 행사 개최

창원교도소는 10월 11일 인제대학교 상담심리치료학과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참관 행사를 개최하였다. 학생들은 수용 거실, 작업장 등의 시설을 둘러본 뒤 심리치료팀을 방문하였다. 심리치료팀에서는 심리 치료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공과 관련된 진로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

### 부산교도소 | 교위 박종철

#### 교정교화 법사단 위문 공연 행사 개최

부산교도소 교정교화 법사단은 10월 2일 부산교도소 대강당에서 수용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문 공연을 펼쳤다. 이날 해양정비창 JBC밴드그룹과 가수 최진철, 아라, 테너 이해웅 등이 공연을 펼쳤다. 특히 수용자들이 직접 노래 실력을 펼치는 수용자 장기 자랑도 마련되었다.



### 포항교도소 | 교사 권대희

#### 신규 의료기술주사 임용식 개최

포항교도소는 10월 1일 대회의실에서 2019년 제3회 일반직 공무원(의료기술주사) 경력 경쟁 채용 시험에 합격한 신규 공무원의 임용식을 실시하였다. 정창현 소장은 축사를 통해 "긍정적인 생각과 적극적인 자세로 근무하여 교정직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를 바란다"며 격려했다.

## 대구지방교정청

### 진주교도소 | 교위 성태현

#### 수용자 가을 행복 힐링 음악회 개최

진주교도소는 10월 18일 대강당에서 수용자와 함께 하는 '가을 행복 힐링 음악회'를 개최하였다.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불교분과위원회의 후원으로 개최된 이날 공연은 수용자 노래자랑, 초청 가수 공연 순으로 진행되었다. 수용자들은 초청 가수의 노래를 함께 따라 부르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 대구구치소 | 교사 광명재

#### 정화여자고등학교 보라미 준법교실 실시

대구구치소는 10월 대구정화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라미 준법교실을 실시하였다. 학생들은 준법 교육 동영상 시청하고 법 준수의 중요성과 교정기관의 필요성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 이후 점권실 등 교정시설 주변 환경 미화에도 참여하였다.

### 경북직업훈련교도소 | 교도 하우현

#### 신규 교정위원 위촉식 개최

경북직업훈련교도소는 10월 10일 교정협의회 신규 위원 4명에 대한 위촉식 및 참관 행사를 개최하였다. 교화 분야 2명과 종교 분야 2명 등 신규 교정위원들은 법무부장관 명의의 위촉장과 위촉패를 받은 뒤 수용 거실과 직업훈련장 등을 참관하며 교정행정을 이해하였다.

### 안동교도소 | 교사 김길수

#### 경안여자중학교 보라미 준법교실 실시

안동교도소는 10월 2일 경안여자중학교 1학년들을 대상으로 보라미 준법교실을 실시하였다. 이날 청소년들은 교정 홍보 동영상을 시청하고 수용 거실 등을 참관하며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의 중요성을 체험하였다.

### 경북북부제2교도소 | 교사 심상헌

#### '장터 가는 날' 전통 시장 방문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10월 23일 전통 시장을 방문

하는 '장터 가는 날' 행사를 실시하였다. 직원들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과 직접 교류하기 위해 청송군 진보면에 위치한 전통 시장을 찾아 먹을거리와 생필품 등을 구입하였다. 또한 시장 상인들과 대화를 주고받으며 격려하였다.

### 김천소년교도소 | 교위 조덕래

#### 찾아가는 흡연 예방 및 금연 클리닉

김천소년교도소는 10월 8일 김천시보건소의 '찾아가는 흡연 예방 및 금연 클리닉' 팀을 초청하여 직원들 중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 클리닉을 실시하였다. 이번 금연 클리닉은 2주 간격으로 총 6회에 걸쳐 시행되며, 직원들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 경북북부제3교도소 | 교도 민동백

#### 진성중학교 참관 행사 개최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10월 7일 진성중학교 학생 및 교직원 90명을 대상으로 참관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참가자들은 대회의실에서 교정 장비를 시연 및 체험한 후 교정시설을 둘러보고 화분을 선물로 받았다. 이를 통해 교정행정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 울산구치소 | 교도 박준규

#### 적극 행정 사례 교육 실시

울산구치소는 10월 7일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혁신처 소속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적극 행정 사례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직원들이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 경주교도소 | 교위 박상신

#### 북한 이탈 주민 초청 안보 강연 실시

경주교도소는 10월 8일 북한 이탈 주민 이해영 씨를 초청하여 직원 및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안보 강연을 실시하였다. 이날 이해영 씨는 독재 세습 체제 유지와 군사력 강화를 위한 북한 정권의 핵

실험, 군사적 도발 실태를 전하였다. 이를 통해 직원과 수용자들은 안보관을 확립하고 안보 의식을 강화할 수 있었다.



### 통영구치소 | 교위 강구혁

#### 사격 훈련 실시

통영구치소는 10월 18일 통영시 예비군 사격장에서 사격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날 직원 152명이 훈련에 참여하였으며 K2 소총, K5 권총, K3 기관총 등 사용 총기의 기능을 점검하였다. K2 소총의 경우 사격 우수 직원 3명에 대하여 11월 월례조회에서 시상도 할 예정이다.

### 밀양구치소 | 교도 최상훈

#### 찾아가는 심신케어 프로그램 실시

밀양구치소는 10월 21일 직원들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해 '찾아가는 심신케어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날 노파 측정을 통해 직원들의 스트레스 원인을 찾고, 전문 상담사를 통해 심리 상담을 실시하였다. 또한 체형 교정 및 통증 완화 마사지로 근육 긴장과 피로를 풀어 주는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였다.

### 상주교도소 | 교위 임대욱

#### '달팽이봉사단' 장학금 전달

상주교도소 '달팽이 봉사단'은 10월 16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상주중학교와 사벌초등학교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장학금 전달 대상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성적 우수 학생과 선행 또는 효행 학생,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었다. 이날 상주중학교 학생 3명, 사벌초등학교 학생 3명 등 총 6명에게 120만 원(인당 2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 대전지방교정청

### 대전지방교정청 | 교위 정구완 체육의 날 기념 빈계산 등산

대전지방교정청은 제57회 체육의 날을 맞이하여 10월 15일 계룡산 줄기인 빈계산을 등반하였다. 이날 직원들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가을 산자락의 정취를 느끼며 재충전과 힐링의 시간을 보냈다. 등반 후에는 간담회를 통해 동료와 소통하고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 대전교도소 | 교감 송재상 대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참관 행사 개최

대전교도소는 10월 4일 대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남미애 교수 및 학생을 대상으로 참관 행사를 개최하였다. 학생들은 미디어에서 보았던 교정시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하며 교정행정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

### 청주교도소 | 교위 박해양 ‘제54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총 269개 참가 기관 중 6위 쾌거

청주교도소는 10월 4일부터 10월 11일까지 8일간 부산광역시에서 개최한 ‘제54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수형자 4명이 참가하였다. 이들 4명은 금메달 2개와 은메달 2개를 수상하였다. 이로써 총 269개 참가 기관 중 6위라는 뛰어난 성적을 기록하였다.



### 천안교도소 | 교도 전인호 월봉중학교 ‘지역사회 일터 체험’ 참관 행사 개최

천안교도소는 10월 2일 월봉중학교 학생들의 ‘지역사회 일터 체험’ 참관 행사를 개최하였다. 학생들은 천안교도소를 방문하여 교정시설을 참관하고 교도관이라는 직업을 체험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교정행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해하고 진로 탐색의 기회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 청주여자교도소 | 교사 김은정 개청 30주년 기념 ‘직원 화합 한마당’ 개최

청주여자교도소는 10월 16일 개청 30주년을 기념하여 ‘직원 화합 한마당’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전 직원이 참여하여 투호, 풍선 터트리기, 개인전과 줄다리기, 단체전, 박 터트리기 등 다양한 종목의 경기를 진행하였다. 직원들은 적극적인 자세로 경기에 참여하며 서로 교류하는 등 축제와 화합의 장을 만들었다.

### 공주교도소 | 교위 이경민 중국 절강경관직업학원 교정 관련 대학교수 참관 행사 개최

공주교도소는 10월 18일 중국 절강경관직업학원의 교정 관련 대학교수를 대상으로 참관 행사를 개최하였다. 참가자들은 한국 교정행정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중국 교정과와의 차이점을 언급하였다. 이번 행사는 다른 나라 교정에 대해 알아보는 한편 한국의 교정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충주구치소 | 교위 김인호 젠더폭력 예방 통합 교육 실시

충주구치소는 10월 16일 중앙경찰학교 인권교양학과 김가경 교수요원을 초빙하여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젠더 폭력 예방’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젠더 폭력의 원인과 영향, 가정 폭력·성희롱 등의 유형과 사례를 살펴보았다.



### 홍성교도소 | 교도 조경환 홍성여자중학교 진로 상담 및 참관 행사 개최

홍성교도소는 10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홍성여자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상담 및 참관 행사를 개최하였다. 참여한 학생들은 여수용동 운동장과 화상접견실, 강당 등 교정시설을 둘러보았다. 이후 교도소와 교도관이라는 직업에 대해 질문하며 교정행정을 이해하였다.

### 천안개방교도소 | 교도 하대웅 공직자 종교 차별 예방 교육 실시

천안개방교도소는 10월 16일 배재대학교 안신 교수를 초청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종교 차별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직원들은 바람직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열성적으로 교육에 참여하며 공직자의 종교적 중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았다.

###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 교사 유제영 해미중학교 보라미 준법교실 실시

홍성교도소 서산지소는 10월 16일 해미중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교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 주고 법질서 준수의 중요성과 교도관이 하는 일 등에 대해 강연을 진행하였다. 박용우 지소장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에게 교정시설 참관, 직업 체험, 준법교실 등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 교사 정연호 성동초등학교 보라미 준법교실 실시

대전교도소 논산지소는 10월 11일 성동초등학교 학생 37명을 대상으로 법질서 생활화 및 교도소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하는 보라미 준법교실을 실시하였다. 이날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수용 관리 실상에 대한 퀴즈를 푸는 시간도 가졌다.

## 광주지방교정청

### 광주지방교정청 | 교위 안동일 송무 업무 담당자 간담회 개최

광주지방교정청은 10월 25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대회의실에서 송무 업무 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주요 소송 사례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토의하였다. 이후 이어진 오찬에서 윤재홍 청장은 송무 업무 담당자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수용자 인권 신장 등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 광주교도소 | 교사 박승현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참관 행사 개최

광주교도소는 10월 22일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광주교도소 등 검찰청 차장검사 조종태 위원장, 광주지방교정청장 윤재홍 위원 등 14명을 초대하여 참관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참가자들은 최신 전자 경비 시스템을 확인하며 변화하는 교정을 이해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 전주교도소 | 교위 박승훈 '커피 세라피 집단 상담' 프로그램 실시

전주교도소는 10월 2일 심신의 안정과 치유가 필요한 직원들이 업무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도록 '커피 세라피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전주교도소는 직원들의 정신 건강을 회복하고 사기 진작을 도모하였다.



### 순천교도소 | 교사 이승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장 방문

순천교도소는 10월 18일 구 내의 시설 시찰 및 직원 간담회를 위해 방문한 광주지방법원 김상곤 순천지원장을 맞이하였다. 이날 김상곤 순천지원장은 시찰 및 간담회를 통해 교정공무원의 애로 사항에 깊이 공감하며, 교정행정 전반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였다.



### 목포교도소 | 교사 김민선 수형자 노래자랑 및 교화공연 개최

목포교도소는 10월 18일 교정협의회회의 후원을 받아 450여 명의 수형자를 대상으로 '목포교정마을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였다. 수형자들은 평소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공연을 관람하고 노래자랑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오랜 수용생활로 인한 긴장을 해소하였다.

### 군산교도소 | 교사 정임택 수형자 노래자랑 및 교화공연 개최

군산교도소는 10월 18일 수형자 노래자랑 및 교화 공연을 개최하였다. 이번 공연은 수형자의 정서 안정과 심성 순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다. 군산교도소는 이러한 공연을 통해 명랑한 수용 환경을 조성하여 교정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



### 제주교도소 | 교사 황승민 광주지방교정청장 정책 현장 방문

제주교도소는 10월 15일 주요 정책 추진 사항 및 시설물 등을 점검하기 위해 방문한 윤재홍 광주지방교정청장을 맞이하였다. 이날 윤재홍 청장은 간

담회를 열어 현장 직원들과 소통하였으며 '더 나은 내일, 희망의 교정'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다.

### 장흥교도소 | 교위 오창용 '환경 정비의 날' 행사 실시

장흥교도소는 9월부터 매월 2회씩 '환경 정비의 날'을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교도소 내 환경을 정비하였다. 직원들은 방문한 민원인이 쾌적하고 온화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환경 정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 해남교도소 | 교도 이상문 고산 윤선도 유적지 '녹우당' 견학

해남교도소는 10월 1일 해남읍에 소재한 녹우당을 견학하였다. 견학에 참여한 직원들은 녹우당 내 민가 일대와 경관이 좋기로 유명한 비자나무 숲을 둘러본 후 시설 관리인에게 녹우당의 유래와 역사적 가치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번 견학으로 직원들은 업무로 지친 심신을 달래고, 인문학적 소양을 높일 수 있었다.



### 정읍교도소 | 교사 안하옥 승진 시험 응시 직원 격려 행사 실시

정읍교도소는 10월 12일 교정관 승진 시험, 19일 교위 승진 시험에 응시한 직원 모두에게 시험 합격을 기원하는 의미로 합격 엿을 전달하는 동시에 따뜻한 응원과 격려의 말을 전하였다. 이를 통해 정읍교도소는 돈독한 직장 동료애를 도모하였다.



## 교정공제회

### 모범 공제회원 현장견학 실시

교정공제회는 하반기 2차에 걸쳐 모범 공제회원 현장견학을 실시하였다. 현장견학단은 전국 지부에서 선발된 모범 공제회원과 가족 등 총 157명(회원 79명, 가족 7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2박 3일 동안 제주도를 현장견학하며 서로를 격려하였다.



## 국군교도소

### 드론 강연 실시

국군교도소는 10월 25일 장병들을 대상으로 드론 강연을 실시하였다. 월드드론교육원과 함께한 이번 드론 강연은 드론의 역사, 드론을 잡는 안티드론, 드론 체험 및 시연 등이 진행되었다. 국군교도소는 군 유일의 교정교화 기관으로서 부대 구성원들이 발전하는 기술과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모범공무원을 소개합니다



수원구치소  
교위 김관

### 수용자의 심리 안정을 위한 상담 및 교육으로 인권 존중 실천

수용자가 심리적 안정을 느끼고 사회 복귀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아버지학교' 프로그램에서 수용자 교육을 담당하며 진정한 인권 존중과 봉사를 몸소 실천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불우 수용자에게 매년 약 70만 원의 영치금을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서울

대구

### 엄정한 법 집행과 면밀한 동정 관찰로 수용질서 확립

수용3팀장으로서 조사징발수용동, 계호상 독거수용동을 관리하며 상습 규율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였다. 또한 동료 직원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교정사고 우려가 있는 수용자의 동정을 면밀히 살피는 것은 물론 계호상 독거수용동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들을 집중 관리하여 수용질서를 확립하였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감 박태진



청주여자교도소  
교감 길건희

### 직업훈련 및 취·창업 업무로 수용자의 사회 복귀에 기여

30년 동안 직업훈련과 취·창업 업무 등을 담당하며 교정행정 발전과 수용자들의 건전한 사회 복귀에 기여하였다. 각종 취·창업 교육, 구인·구직 만남의 날 등을 실시하여 수용자들이 출소 후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대전

광주

### 철저한 전자경비 시스템 활용으로 교정사고 예방

보안과 중앙통제실을 담당하며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적극적인 자세로 전자경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전자영상 장비가 설치된 거실의 수용자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교정사고를 예방하였다. 또한 전자경비 시스템을 스스로 연구하고 작동 불량 시 즉시 복구 조치하는 등 전자 경비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광주교도소  
교위 양영길

# 국민들이 교정공무원을 응원합니다!

“

## 청주여자교도소 교도관 체험수기

CJ ENM 오픈 김동경 작가

짧은 1박 2일의 시간이었지만 뜻깊은 기회였습니다. 교정본부에서 이름까지 새긴 근무복도 제공해 주었고, 뵈었던 교도관님들 모두 친절하게 청주여자교도소의 생활과 근무 상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국내 유일의 여자교도소로 그 역할이 막중하기에, 군대로 치면 여성 수용 시설의 전방이라는 비유가 너무도 적절히 와 닿았습니다. 오전에는 민원실부터 사회복귀과, 보안과 등을 방문해서 간략한 업무 파악을 하고, 오후에는 본격적으로 수용동을 돌며 시설과 수용자들의 모습을 직접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교도소라는 공간에 대한 선입견 탓인지 처음에는 수용자들의 눈을 바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긴장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작업장과 수용동을 돌면서 깨달은 바는, 그들은 그저 같은 사람일 뿐 그 어떤 경계가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순찰을 돌며 수용자들을 대하는 교도관님들의 모습을 지켜보니 단순히 수직적인 관계일 거란 편견이 얼마나 얕은 이해였는지를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출소 후 사회 속에서 다시 섞여 만날 사람들. 그러나 반드시 쫓값을 치르고 교정과 교화를 거쳐 자유의 무게와 가치를 다시 배워 가야만 하는 곳. 그리고 많은 인생이 지나는 곳. 이곳에서의 생활이 수용자들에게 이후의 많은 것들을 결정하게 하는 중요한 기점이자 기반이겠구나 하는 생각에 이 청주여자교도소라는 공간과 교도관님들의 역할에 새삼 존경심과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한편 수용자들의 인권 보호가 강화되면서 작은 불만에도 민원이나 진정을 넣을 수 있는 구조에 교도관님들이 고충이 더 커진 것은 아닌지 우려가 들기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분들이 계시기에 국민들이 오늘도 편히 잠들 수 있음을 알게 된 1박 2일이었습니다. 좋은 기회를 주신 교정본부와 청주여자교도소 관계자분들, 그 시간을 기꺼이 동행해 준 교도관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가까운 때에 늘 수고하시는 근무자님들을 위한 따뜻한 콘텐츠로 다시 인사드리길 기원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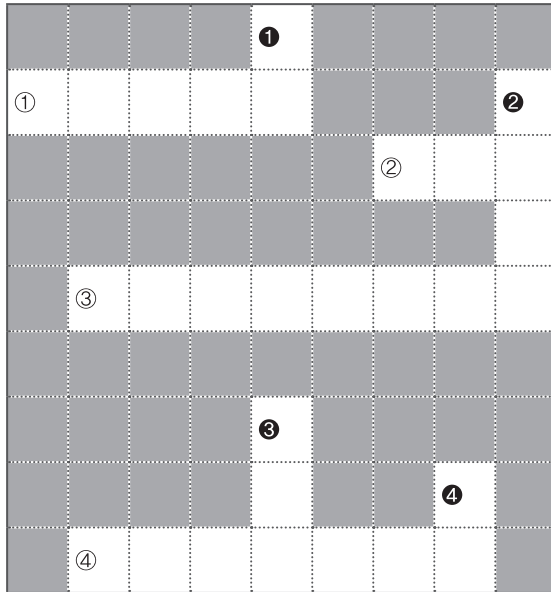




# 교정 낱말퀴즈



월간 <교정> 이번 호에서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가로열쇠

- ① 세계 평화를 위하여 공헌한 사람에게 주는 상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는 인권 운동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였다.
- ② 제자 이상적을 향한 추사 김정희의 마음이 돋보이는 이 그림은 문인화의 대표작으로 꼽히며 국보 제180호로 지정되었다.
- ③ 올해로 54회를 맞은 이 대회에 전국 교정기관 수형자 32명이 참가하여 웹디자인 및 개발, 실내장식, 냉동 기술, 타일 등 11개 직종에서 20명이 입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 ④ 밴쿠버 시내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위치한 ○○○○○○○○은 사계절 내내 레포츠를 즐기기에 제격인 곳으로, 겨울에는 스키와 스노보드를 타며 눈 덮인 경치를 한껏 즐길 수 있다.

## 세로열쇠

- ① 태국 방광 교도소는 ○○ 조각 훈련 프로그램이 수용자의 심성을 순화하는 데 도움이 되어 교화에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 ② 제74주년 교정의 날을 기념하여 부산구치소는 '제5회 어린이 ○○○○'를 열어 교정행정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었다.
- ③ '얼죽아'라는 신조어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추운 날씨에도 이 음료만 마시는 것을 뜻하며, 반대말로는 '찌죽따(찌죽어도 따뜻한 음료)' '뜨죽따(뜨거워 죽어도 따뜻한 음료)'가 있다.
- ④ 특정한 작업을 실행하기 위한 일련의 명령을 뜻하는 단어로, 보통 규칙적으로 하는 일의 순서나 방법을 이야기할 때 사용한다. 휴일에도 잘 쉬기 위해서는 업무를 수행할 때 작업 계획서를 쓰고 실행하듯이 이것을 잘 짜서 간단한 계획표를 만들고 그에 따라 움직이는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다.



## ★ 정답 보내실 곳 ★

독자엽서에 정답을 적어 보내 주시거나, 상단 QR코드를 통해 참여 페이지에 접속한 후 정답을 적어 응모하시면 됩니다. 아래 E-mail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정답을 적어 보내 주신 분께는 월간 <교정>에서 준비한 소정의 상품을 보내 드립니다.

전화 02-2272-1190 E-mail correct2015@naver.com



월간 **인정**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독자의 소리

양영근 님(광주교도소 교감)

## 지난 호 퀴즈 정답

|     |   |    |   |    |   |   |   |    |   |
|-----|---|----|---|----|---|---|---|----|---|
|     |   |    |   | ③행 |   |   |   |    |   |
| ①①아 | 동 | 친  | 화 | 형  |   |   |   |    |   |
| 버   |   |    |   | 법  |   |   |   |    |   |
| ②지  | 동 | 설  |   |    |   |   |   |    |   |
| 학   |   |    |   | ③심 | 리 | 치 | 료 | ④과 |   |
| 교   |   | ②자 |   |    |   |   |   |    | 유 |
|     |   | ④매 | 너 | 리  | 즘 |   |   |    | 불 |
|     |   | 결  |   |    |   |   |   |    | 급 |
|     |   | 연  |   |    |   |   |   |    |   |



## 퀴즈 정답자

임태규 님(서울구치소 교도)



KOREA *Sale* FESTA  
쇼 핑 행 사



**2019 코리아 세일 페스타**

**11월 1일 ~ 11월 22일**

# 더 나은 내일, 희망의 교정



“보라미와 보드미가 함께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교정”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교정본부의 발걸음은 계속됩니다.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여  
신뢰받는 교정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변화시키고  
바른 내일을 만드는 교정의 힘을 믿습니다.

